

cover artist

Jeff Faust

제프 파우스트



제프 파우스트에게 물었다. 예술가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을 했을 것인가를. 그는 이 질문에 예술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상상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화가가 될 줄 알고 있었다는 제프 파우스트.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 아래 자란 그는 이른 나이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게 되었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과 클래식을 즐기는 예술가로 성장했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제프 파우스트는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떠한 규율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철학을 작품에 담아냈다.

이러한 성향 때문인지 그는 붓을 들기 전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먼저 계획을 세운 후 그리는 화가들과 달리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때의 분위기나 상의 이미지를 그려 나가며 점차 작품을 완성해가는 편이다. 평소 막대와 끈, 그릇 같은 사물을 일컬어 작품의 아이디어가 되는 훌륭한 보물상자라 말하는 제프 파우스트는 이러한 단순한 사물들을 가지고 편안하면서도 환상적인 풍경을 그려내는 초현실적 미니멀리즘 작가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아주그룹 매거진 '아주 좋은 날'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다운받아 보세요.



9 788998 482954
ISBN 978-89-98482-95-4
ISBN 978-89-98482-77-0 (세트)

2016 SUMMER

AJU QUARTERLY MAGAZINE

Vol. 45

아주 좋은 날

AJU QUARTERLY MAGAZINE
2016 SUMMER • VOLUME 45





Jeff Faust, *Four Slender Sticks-5*, 60x48 inches



Jeff Faust, *Music in the Wind-7*, 24x36 inches

평범한 일상 속 사물, 작품이 되다

제프 파우스트의 작품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이 자주 등장한다. 화가가 작품 속에 익숙한 사물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흔한 사물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靈感)을 얻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나뭇잎, 막대, 그릇 등 사소하게 느껴질 법한 일상의 다양한 사물이 작품의 모티프가 된다. “그릇은 온갖 아이디어의 시발점이 되며, 평범한 막대로부터 탄생한 그림도 여러 점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보며 심오한 감동을 받기도 하며, 특정한 형태로 모여 있는 구름을 보며 끝없이 많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알맞게 균형을 잡은 새 동지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생각을 하게 하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 내는 화가 제프 파우스트. 평범한 오브제를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해 낸 그의 작품은 그 자체로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표지. Jeff Faust, *The Floating Chapel-47*, 60x48 inches

뒷표지. Jeff Faust, *Haiku with Lemons 9*, 40x30 inches

작가 홈페이지. www.jefffaust.com

세상을 바꾸는 ‘다른 시선’의 힘!

청포도가 싱그럽게 익어가는 여름이 왔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엇그제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흘러 여름이 뜨겁기만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여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휴식은 우리를 재충전하게 해주고, 때론 느리게 가는 길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른 속도, 다른 생각,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노라면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가겠지요. 나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여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날



꽃창포
그림 송훈

『아주 좋은 날』은 다 함께 생각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갤러리와 같은 매거진을 추구합니다. 예술과 문화, 인문학적 바탕을 통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품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Contents

Section 1.	Art + Life
02 gallery	세상을 바꾸는 ‘다른 시선’의 힘
08 opinion	인간 vs 인공지능? 더불어 사는 미래가 시작되다!
10 insight	세상을 바꾼 퍼스트 무버, 관습과 차별을 깬 여성들
14 people	다른 시선으로 도시 건축의 다른 미래를 제시하다
18 curator's choice	영화 속 인공지능, 현실에서는?

Section 2.	Now + Moment
21 road trip	자연을 벗 삼은 풍요로운 땅을 달리다
26 trip gourmet	칭아한 맑은 향으로 즐기는 영양 만점 여름 보양식 연잎밥
28 motor story	한여름날의 SUV 오토캠핑!
32 favorite things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 금기숙 교수의 여가식미
36 scene of object	영국 신사의 품격을 말하다, 킹스맨 우산

Section 3.	Aju + Style
39 aju spirit	아주인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휴가’의 정석!
44 aju sharing	휴식과 위안의 제15회 아주 특별한 여행 아이들의 생각이 커가는 꿈꾸는 작은 책방
48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2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AJU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6년 7월 15일(통권 제45호) 발행처 아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팀(02-3475-9693)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안그래픽스 편집 이미래 디자인 박단비 인쇄 삼성문화인쇄 등록번호 서초 바00128호

『아주 좋은 날』은 개간으로 발행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날』은 한국간행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주 좋은 날』에 실린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아주 좋은 날』의 자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본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좋은 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상기 연락처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다른 시선'의 힘 세계의 역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기존 사회 질서를 바꾸거나 고정관념과 통념을 바꿀 때 필요한 다른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수면 아래 펼쳐진 신비한 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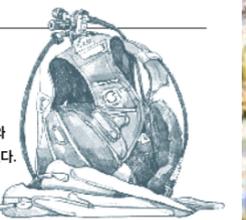
그린 레이크. 그뤼너 씨
GREEN LAKE. GRÜNER 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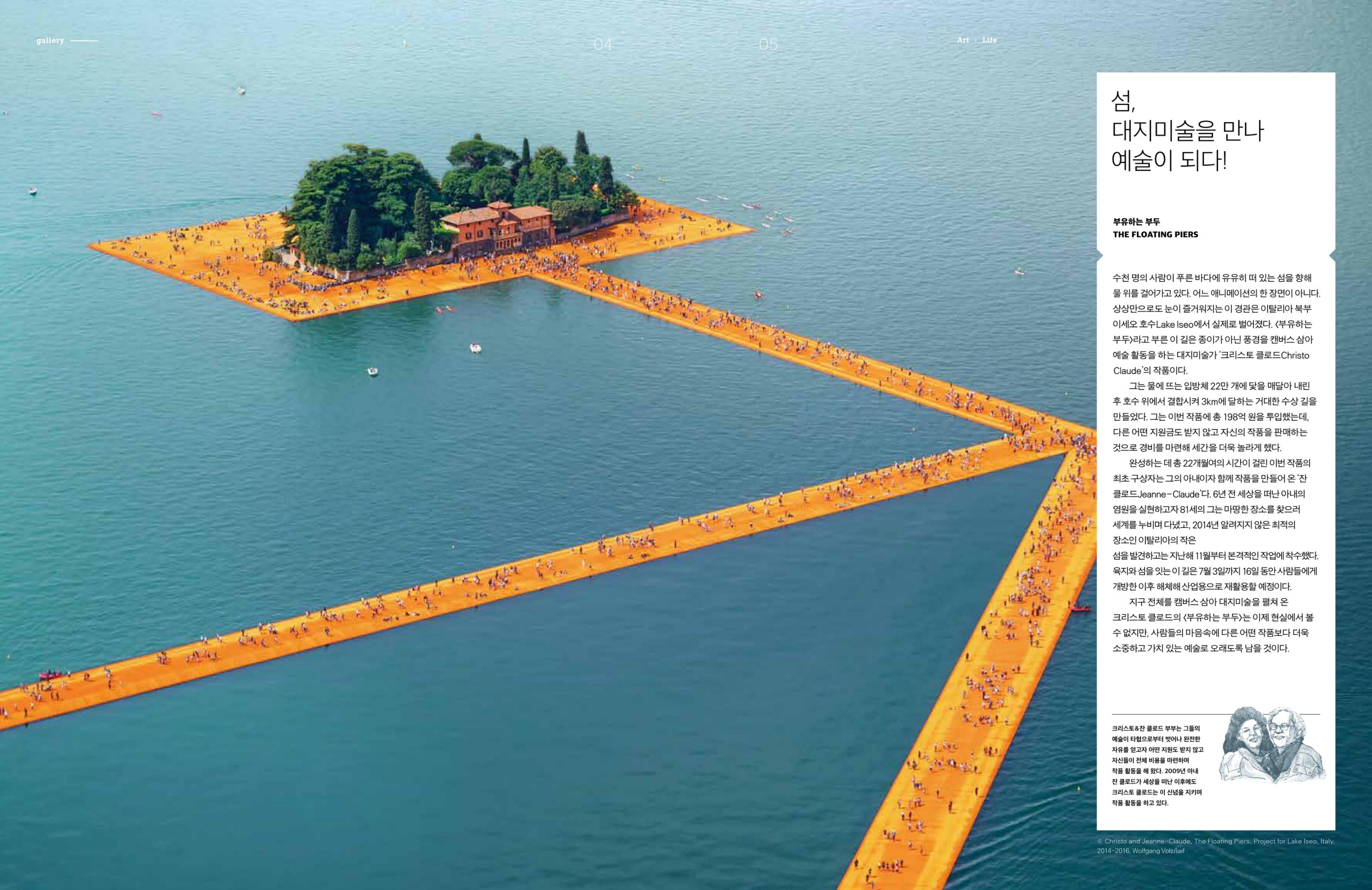
하이킹 족의 낭만적 장소였던 초원이 두 달 새 수심 12m에 이르는 깊은 호수로 바뀌어 다이버를 맞이한다. 오스트리아 휘슬러 밸리에서도 가장 북쪽, 그린 레이크에 있는 그뤼너 씨 Grüner See 공원의 이야기다. 8월에서 4월까지 이곳은 수심 2m가 넘지 않는 얇은 호수와 푸른 초원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평화로운 공원이다. 하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알프스산맥에서 녹아 내려온 눈이 호수를 채우기 시작하고 6월쯤 되면, 초원은 수심 12m에 이르는 깊은 물에 모두 잠겨 버린다.

더 이상 푸르른 초원을 볼 수 없다고 아쉬워할 거를도 없이 영롱한 청록빛 물결 위로 지상에서는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수면을 통과한 햇살이 초원의 꽃과 잔디, 나무를 비취 영롱하게 빛이 나고 방문객들이 쉬어 가곤 했던 벤치에는 어느새 물길을 따라온 물고기 떼가 머무른다. 불과 두 달여 전 거닐었던 땅에서 동화 속 세상을 옮겨 놓은 듯한 수경을 만나 볼 수 있는 것이다.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카누나 스쿠버다이빙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도 더 없이 좋은 그뤼너 씨 공원. 자연의 마법으로 놀라운 경치를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그뤼너 세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며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안겨 준다.

그린 레이크 Green Lake라는 이름은 에메랄드빛을 띠는 물색 덕분에 붙은 것. 깨끗하고 차가운 호수 아래 산책로를 따라 날아가듯 다이빙을 즐기다 보면 고기들이 잔디와 나무 사이를 헤엄쳐 다니는 진풍경을 만날 수 있다.





섬, 대지미술을 만나 예술이 되다!

부유하는 부두 THE FLOATING PIERS

수천 명의 사람이 푸른 바다에 유유히 떠 있는 섬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 어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아니다. 상상만으로도 눈이 즐거워지는 이 경관은 이탈리아 북부 이세오 호수 Lake Iseo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부유하는 부두>라고 부른 이 길은 종이도 아닌 풍경을 캔버스 삼아 예술 활동을 하는 대지미술가 '크리스토 클로드 Christo Claude'의 작품이다.

그는 물에 뜨는 입방체 22만 개에 닻을 매달아 내린 후 호수 위에서 결합시켜 3km에 달하는 거대한 수상 길을 만들었다. 그는 이번 작품에 총 198억 원을 투입했는데, 다른 어떤 지원금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경비를 마련해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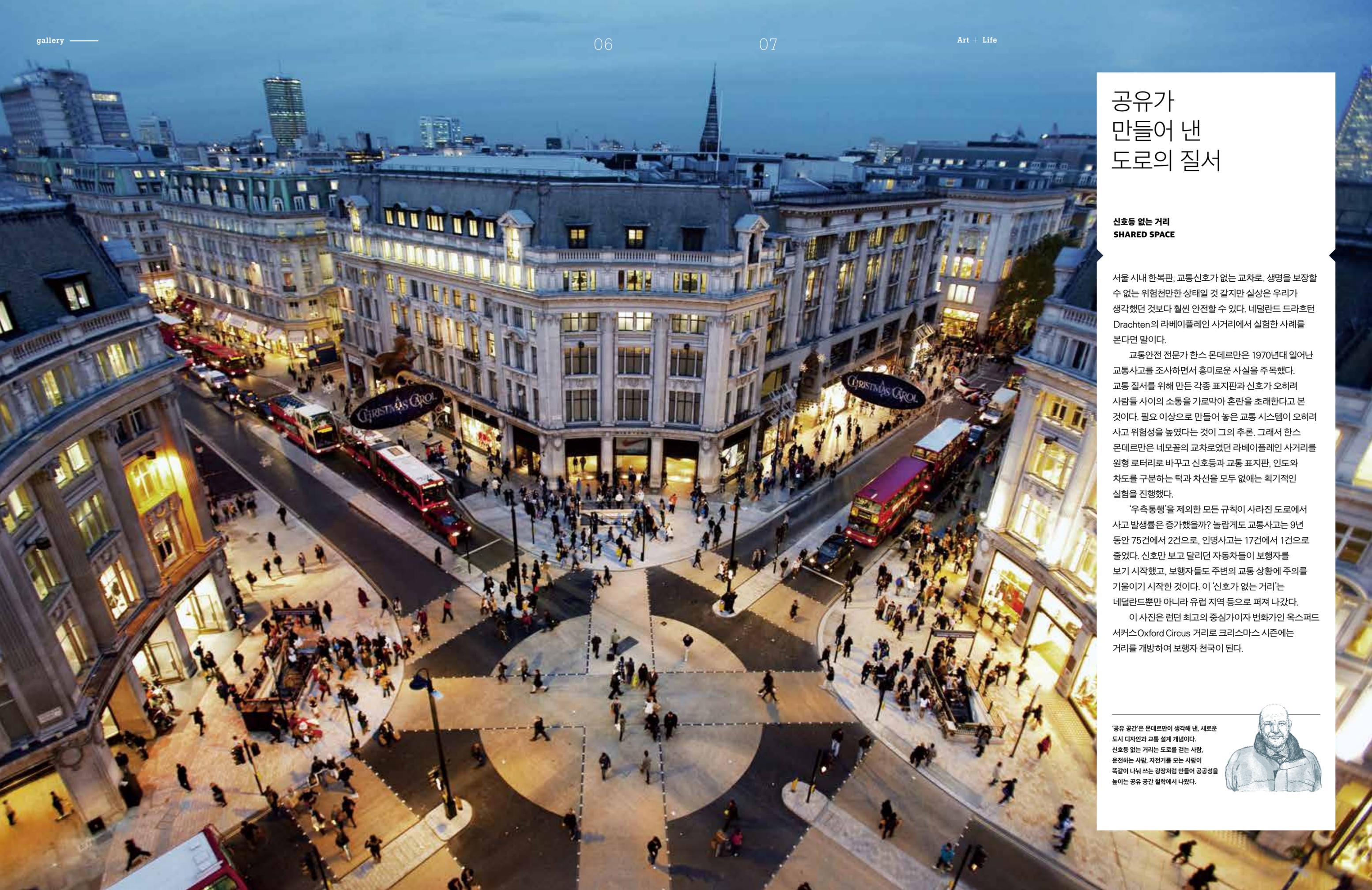
완성하는 데 총 22개월여의 시간이 걸린 이번 작품의 최초 구상자는 그의 아내이자 함께 작품을 만들어 온 '잔 클로드 Jeanne-Claude'다. 6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81세의 그는 마땅한 장소를 찾으려 세계를 누비며 다녔고, 2014년 알려지지 않은 최적의 장소인 이탈리아의 작은

섬을 발견하고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육지와 섬을 잇는 이 길은 7월 3일까지 16일 동안 사람들에게 개방한 이후 해체해 산업용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지구 전체를 캔버스 삼아 대지미술을 펼쳐 온 크리스토 클로드의 <부유하는 부두>는 이제 현실에서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작품보다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술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크리스토 & 잔 클로드 부부는 그들의 예술이 타협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고자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전체 비용을 마련하며 작품 활동을 해 왔다. 2009년 아내 잔 클로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크리스토 클로드는 이 신념을 지키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공유가 만들어 낸 도로의 질서

신호등 없는 거리 SHARED SPACE

서울 시내 한복판,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함 상태일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다. 네덜란드 드라흐텐 Drachten의 라베이플레인 사거리에서 실험한 사례를 본다면 말이다.

교통안전 전문가 한스 몬데르만은 1970년대 일어난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주목했다. 교통 질서를 위해 만든 각종 표지판과 신호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아 혼란을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교통 시스템이 오히려 사고 위험성을 높였다는 것이 그의 추론. 그래서 한스 몬데르만은 네모꼴의 교차로였던 라베이플레인 사거리를 원형 로터리로 바꾸고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턱과 차선을 모두 없애는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우측통행’을 제외한 모든 규칙이 사라진 도로에서 사고 발생률은 증가했을까? 놀랍게도 교통사고는 9년 동안 75건에서 2건으로, 인명사고는 17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신호만 보고 달리던 자동차들이 보행자를 보기 시작했고, 보행자들도 주변의 교통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신호가 없는 거리’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 사진은 런던 최고의 중심가이자 변화가인 옥스퍼드 서커스 Oxford Circus 거리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거리를 개방하여 보행자 천국이 된다.

‘공유 공간’은 몬데르만이 생각해 낸, 새로운 도시 디자인과 교통 설계 개념이다. 신호등 없는 거리는 도로를 걷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자전거를 모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 쓰는 광장처럼 만들어 공공성을 높이는 공유 공간 철학에서 나왔다.



인간 vs 인공지능?

더불어 사는 미래가 시작되다!

인공지능의 본질은 '판단' 아닌 '반복'

인공지능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알파고를 비롯해 근래 우리 세상에 쓰이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기반을 둔다. 이런 기술은 어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컴퓨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답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답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통찰력을 가진 것처럼 느낀다. 알파고도 바둑 그 자체의 흐름을 이해한다기보다 수백만 건의 바둑 기보를 학습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돌을 두었을 때 승리할 확률이 높은가'를 매번 계산해 내도록 설계했다. 똑같이 바둑판에 돌을 놓지만 사람이 바둑판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전혀 다르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도 머신러닝을 두고 통찰력보다 '사람이 해야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기술'로 설명한다. 컴퓨터에게 '이건 맞고, 저건 틀린 답'이라는 규칙을 세워 주고 이를 거의 무한히 반복시키면서 일정한 규칙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마치 아이나 강아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기계를 학습시킨다는 의미로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을 쓴다.

사람과의 대국을 통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낸 알파고는 그 어떤 기업이나 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다.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경쟁과 공생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공지능. 계절이 한 차례 바뀌는 사이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고 있을까? 글: 최호섭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돕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반기는 것은 역시 산업계다. 컴퓨터는 '컨디션'이라는 것이 없어서다. 특별히 고장나지 않는 한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답을 낸다. 알파고는 전날의 대국 결과가 심리적으로 다음 대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람과 가장 큰 차이이다. 규칙만 제대로 세워 놓으면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아주 사소한 조건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술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보안이나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수용 여부를 고민한다.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미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기술을 도입했다. 엘리베이터에 수많은 센서를 달아 놓고, 어떤 특정 조건이 맞아 떨어질 경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한 것이다. 사람은 기계를 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해 고장을 짚어 내지만 컴퓨터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어떤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곧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티센크루프는 머신러닝으로 전 세계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똑같은 수준의 고장 예측 기술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고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대응책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엘리베이터 사고를 사전에 막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다.



HUMAN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예술하는 인공지능은 자연스러운 변화

하지만 이처럼 산업 분야에서 컴퓨터가 어떤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두려움으로도 이어진다.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는 기사를 대신해 기사를 쓰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코드 진행으로 그럴싸한 음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시나 소설을 쓰는 컴퓨터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내 직업은 무사한가?'라는 걱정이 나올 만도 하다.

티센크루프의 예를 다시 보자. 숙련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고장 예측과 관리는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항목이었다. 하지만 안전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머신러닝이 도입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똑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측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개별 엔지니어들이 이전에 비해 더 실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받아들이는 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더 많은 사람이 실수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개발되고 있다. 애초에 컴퓨터의 역할도 실수 없이 계산을 하는 것이었다. 인공지능의 역할과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밀어내고, 인간의 역할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기술의 흐름은 변하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일

자리를 비롯해 어느 정도 사회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타이피스트나 전화교환원, 더 나아가 가마꾼 같은 직업이 변하는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알파고의 대국을 앞두고 이세돌 9단은 "컴퓨터가 사람만큼 바둑을 잘 둘 수는 있겠지만 바둑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알파고는 수많은 점 중 하나씩을 짚어 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두고 복잡한 감정과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시작되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갈 미래는 이미 출발한 것이다.

글쓴이 최호섭은 IT 칼럼니스트로, 다수의 IT 관련 강연, 기고를 통해 사회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기술 이야기를 쉬우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세상을 바꾼 퍼스트 무버, 관습과 차별을 깬 여성들

민족과 시대를 넘어선 김만덕과 조세핀 오펔리아 페인. 그들은 조선을 사랑했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며 세상을 바꾼 여인들이다. 울퉁고 꺾꺾한 정신으로 시대의 관습과 차별을 깬 두 여인이 걸어온 삶의 길을 조명해 보았다. 글 이성주 일러스트 민지홍



조선 시대 푸른 눈의 선구자

조세핀 오펔리아 페인

Josephine Ophelia Paine

조세핀 오펔리아 페인이란 이름은 일반인에게 낯설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의 여성사와 민족 독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그녀는 1869년 2월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보스턴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교사양성소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이후 1891년 11월 한국 파송 선교사로 선임되어 1892년 8월 미국 감리회 소속으로 내한했다. 그리고 1893년 9월 18일 이화학당장에 취임한 후 15년간 조선의 여성 교육에 헌신했다.



신분제 사회 속 수많은 편견을 이겨 낸

김만덕

金萬德

김만덕이란 이름은 우리나라 여성사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여성의 권리가 바닥을 맴돌던 시기, 성공한 여성 CEO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렇게 얻은 부(富)를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과 나눈 점에서 본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만덕에 관한 역사상의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여성이었고, 양민이었으며, 조선인이었다는 점이 그녀를 잊게 만들었을까?



규제를 넘어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

조세핀 오필리아 페인은 조선인의 교육을 위해 한민족 최초의 생리학(生理學) 교과서를 만들었고, 중등교육 과정을 설치해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체계적인 신식 교육 기틀 확립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녀가 한민족 최초로 여성에게 '체육' 과목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여성의 걸음걸이는 뒷발꿈치 높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이 당시 조선 사람들의 통념이었다. 그런데 오필리아의 생각은 달랐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해야 할까?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린다고 생각한 그녀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여학생들의 면역력을 높여야 하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운동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각에서는 이화학당에 다닌 여학생은 머느리로 삼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필리아는 체육 수업을 강행했다. 이러한 고압적인 사회 분위기는 1895년 고종이 덕(德), 체(體), 지(知)를 교육의 3대 강령으로 정한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하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후로 15년이 지난 191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학생들도 농구와 정구 등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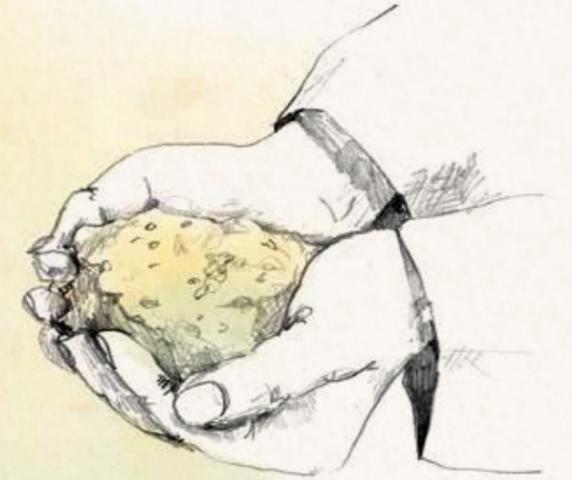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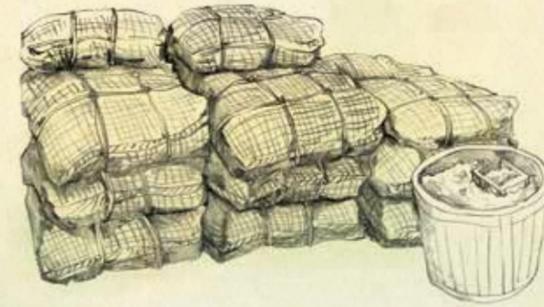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치마'였다. 당시 조선의 한복 치마는 몸에 동여매는 형태였는데, 이 때문에 치마가 흘러내릴까 봐 여학생들이 마음껏 뛰지를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이화학당 대학과 교수 진넨트 월터(Jeanette Walter)가 어깨허리 치마를 고안해 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복 치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깨끈의 시작점이었다.

부모의 마음으로 '조선'을 사랑했던 여인

당시 오필리아는 '진정한 교사'의 모습 그 자체였다. 러일전쟁 당시 흉흉한 소문이 돌자 오필리아는 여학생을 기숙사에 보호하고 쌀과 어포 등 각종 식량을 비축해 이들이 혹여 모를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보호했고, 학생들을 위한 식사에 무척 관심을 가져 직접 가마를 타고 시장을 가 학생들이 먹을 음식을 구매했다. 학생들이 흰쌀밥만 먹는 통에 팥밥이 먹고 싶다 말을 하자 직접 팥을 사다 팥밥을 해 줄 정도로 인자했지만, 교육에서는 엄격함을 강조해 학생들로부터는 '아버지'라 불렸다고 한다.

오필리아는 학생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여학생을 넘어 조선 그 자체를 사랑했던 인물이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그녀는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학생들을 모아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조선 주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렇듯 조선을 사랑했던 그녀지만, 1909년 해주 지방 전도 사업을 위한 순회 중 안타깝게도 콜레라에 걸려 별세하고 말았다. 여학생들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체육 수업을 시작한 그녀가 콜레라에 걸려 사망하더니, 아이러니한 그녀의 마지막이 아쉽기만 하다.



세 개의 족쇄, 한 번의 기회

1739년에 태어난 김만덕에게는 3개의 족쇄가 있었다.

첫째, 여자라는 점이다. 조선 초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전조(前朝) 고려를 따라 꽤 높았다.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균분상속제라 해서 딸도 아들처럼 재산을 상속받았고, 친손자가 없으면 외손자가 제사를 지낼 정도로 유교의 색채가 엷었다.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잡겠다고 유교가 교조화되면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거세졌다.

둘째, 조실부모(早失父母). 제주도에서 양인(良人)인 아버지 김용열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태어난 김만덕은 열두 살 때 부모 모두를 잃고, 외삼촌 집에서 얹혀살았다.

셋째, 신분적 한계. 양반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양인이란 신분적 한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다. 게다가 부모님 사후에 외삼촌 집에서 얹혀살던 그녀는 은퇴한 기생의 수양딸로 들

어가 기생 수업을 받다 친가의 강요로 기생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김만덕의 삶은 한없이 처량하기만 하다. 그런 김만덕에게 영·정조 시대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준다. 이양법의 등장과 이로 인한 상업 경제의 발전, 화폐의 유통으로 조선의 상업 시장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정점을 찍은 시기가 영·정조 시기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김만덕은 사업 수완을 발휘해 유통으로 큰돈을 벌게 된다.



조선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1795년 제주도에 큰 태풍이 강타했다. 이 탓에 제주도는 흉년이 들었고, 줄지에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육지에서 쌀 500섬을 사 와서 제주 사람들을 구휼했다. 이 사실을 제주 목사 유사모가 조정에 전했다. 당시 왕이던 정조는 김만덕을 불러 올려 직접 얼굴을 보고자 했다. 조선 시대 양반도 아닌 양인 여인을 왕이 만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 당대의 지식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정조의 완팔,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체제공과 정약용이 김만덕에 대한 기록을 글로 남길 정도였으니 그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삶에서도 김만덕의 인간 됬됨이를 알 수 있는데, 모아놓은 재산 중 양아들의 생계를 위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주도 빈민의 구휼을 위해 써 달라며 통 큰 기부를 한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여성들의 특출난 공감능력의 발로라고 해야 할까? 김만덕은 자신이 모은 부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알았던 현명하고 담대한 여성 CEO였던 것이다.

차별과 편견이 제도적으로 용인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수많은 관습을 이겨 내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 낸 두 여성. 그들의 올곧은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퍼스트 무버의 정신을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

글쓴이 이성주는 역사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전시 기획자, 역사 강사 등 시대를 읽는 문화콘텐츠 창작자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시선으로 도시 건축의 다른 미래를 제시하다 건축가 황두진



한옥을 현대건축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작업들로 '한옥 건축가'란 수식어를 획득한 건축가 황두진. 요즘 그의 이슈는 '무지개떡 건축'이다. 회색 도시를 바꾸는 비결로 제안한 도시형 건축물로 그는 웨스트빌리지,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스, 무카스 사옥 등을 통해 무지개떡 건축의 실체를 보여 주었다. 도시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으로 도시의 희망을 설계하는 황두진건축사무소 황두진 소장.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아주산업 경영혁신팀 전지현 팀장이 그를 만났다.

글 김희선 사진 이원재

소장님은 5~6년 전부터 '무지개떡 건축'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무지개떡 건축』을 출간한 데 이어 최근엔 <서울신문>에 '황두진의 무지개떡 건축을 찾아서'를 연재 중이시죠. 무지개떡 건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거와 다른 기능이 복합된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 용어로 '중층 고밀도 주상복합 건축'이라고 하는데, 주상복합이나 상가 주택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데 무지개떡 건축이 넓은 의미에선 주상복합 건축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은 말이 '복합'이지 대부분 주거 용도, 즉 단일 용도로 짓기 때문이지요. 상업 지역에 고급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지은 것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개념 전달이 힘들 것 같아 무지개떡에 비유한 것입니다. 무지개떡 건축은 상가 주택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오늘날의 사회적 환경에 맞게 좀 더 진화하고 발전시킨, 유니크한 일종의 고유명사와 같습니다.

국내외 통틀어 무지개떡 건축의 좋은 사례로 어떤 건물이 있을까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카사밀라 Casa Mila'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카사밀라는 광기 어린 건축가의 독특한 조형 세계를 보여 주는 사례지만 건축적 수사학을 걷어 낸 카사밀라는 놀랍게도 무지개떡 건축입니다. 지하 1층~지상 8층의 카사밀라는 주차장, 상가, 아파트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조각 같은 환기구 등이 있는 옥상도 누구에게나 개방되지요.

사실 해외에는 무지개떡 건축이 정말 많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와 층수만 다를 뿐 단일 용도로 지은 '시루떡 건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거면 주거, 업무면 업무, 상업은 상업, 이런 식이죠.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지개떡 건축이 왜 필요한가요? 오늘날 우리는 단일 용도로 지은 시루떡 건축 일색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는 오직 생활만 하고 일하는 곳에서는 일반 하

지요. 그 탓에 수많은 인구가 하루에 최소 두 번씩 대규모로 이동합니다.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이동 수단이 동원되는데, 이는 모두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한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겉고 싶은 도시', '저녁이 있는 삶'은 꿈과 환상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 도시민의 모습입니다. 무지개떡 건축은 한 지역의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건축 유형입니다. 둘을 한 건물에 공존하도록 만드니까요. 결과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무지개떡 건축을 통해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까요?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십중팔구가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밀도'와 '복합'인데, 이 둘을 결합하면 도시적인 장점이 커집니다. 도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용무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다만 적절한 밀도가 유지되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터와 집이 가까이 있는 직주근접(職住近接)이 이루어지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옥상에 마당을 조성하면 도시에서도 경관을 즐기며 야외 생활을 할 수 있지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의 삶은 이런 거예요. 집에 찾아온 친구와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집 근처 갤러리를 가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해 먹는데 이 모든 것이 반경 5~10분 거리에서 이뤄지는 도시요. 무지개떡 건축으로 지어진 도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무지개떡 건축을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대학 3학년 때 설계 과제 때문에 인사동을 찾았는데, 기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인파로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것이 안타까워 '인사동이나 재동 같은 구도심에



사람이 계속 살려면?'이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한 건물에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을 담고 꼭대기에는 마당이 딸린 주거 공간을 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이 문제는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십 대에 가진 나의 대답은 '무지개 건축이었습니다.

다른 시선에서 비롯된 물음의 답을 아이디어로 찾으셨네요. 제가 몸담고 있는 경영혁신팀은 회사에서 가장 창의력을 요구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소장님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창의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어서 평소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창의력은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보편성의 설계 위에서 꽃이 피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선 보편성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보편적 기준에서 타당성 여부를 질문해야지 한국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선 안 되지요.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막론하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세요?

세계적인 조경 디자이너 캐스린 구스타프슨 Kathryn Gustafson과 친분이 있는데, 언젠가 그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삶이 슬럼프의 연속 같고, 무엇을 해도 뜻대로 안 될 때였지요. 그녀는 슬럼프에 빠지면 현재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한 다음 그와 관련된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는 식으로 집중한다고 해요. 한번은 아프리카 미술에 빠져서 그에 관한 도서를 읽고 여행을 가고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 그렇게 알게 된 건축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와 관련한 작업을 했다고 해요. 저 역시 일이 안 풀리면 관심 있는 주제를 공부합니다.

다양하게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고, 시간 낭비도 안 하는 길입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내가 하는 일과 연결이 되기도 하죠. 캐스린 구스타프슨처럼 말이죠. 요즘은 1960~1970년대 아파트에 꽂혀 있어요. 단지화되기 이전의 아파트에서 배울 점이 많더군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주산업은 전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건축 발전을 위해 우리 회사를 포함한 건축 관련 회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건축가로서 반가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대량생산 위주여서 자재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종류가 한정적이라 응용해서 쓸 수밖에 없지요. 타일과 벽돌이 대표적입니다. 예전에는 타일 종류가 다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코너 타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벽돌 역시 직각 일색이라 설계 목적에 따라선 잘라서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다양한 자재 메뉴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양질의 보편성을 생각해 봅니다. 보편성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한국 사회에선 보편성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라 하는데, 특수는 보편의 다양성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지개떡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들이 약간의 다양성을 보편화한다면 건축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과의 만남은 집과 도시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무지개떡 건축이 하루 빨리 보편화되어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간단해요. 쓸모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건물을 많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 기준에서 만족할 만한 무지개떡 건축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건축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좋은 예를 많이 만들어 내 설득력이 있으면 다른 이들도 시도할 테고, 결과적으로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지개떡 건축을 알리는 집필 활동과 건축 작업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저의 목표와 포부는 결코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작업이니까요.



건축가 황두진의 애장품은 최근에 나온 그의 신간 『황두진-다공성 건축술 시스템』. 2002~2013년의 황두진 건축 작품을 선별한 모노그래프로 건축가 황두진의 건축적 관심사인 중첩된 기하학, 다공성, 건축술과 공간의 집합,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머리와 손을 중재하는 것은. 마음이예요.

영화 속 인공지능, 현실에서는?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¹⁹²⁷부터 〈그녀 HER〉²⁰¹³까지, 영화 백년사 속 인공지능의 진화

알파고의 기념비적인 승리를 보며 당신은 인간이 결국 인공지능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거라는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 더 불안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리우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스크린을 통해 전해 왔다. 글. 김도훈 사진 제공. 파라마운트 픽처스, 워너브러더스

인간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세돌이 졌다. 물론 그가 한 게임을 이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세돌은 졌다는 것이다.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겼다. 어떤 사람은 CPU 1,202대를 탑재한 알파고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경기였다는 자위다. 말이 되는 소리는 하다. 그러나 인간이 인공지능에,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두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바둑에서 패배한 것은 꽤 의미심장하다. 어쩌면 우리는 공

포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에 인간이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제대로 못 이뤘을 수도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취약한 직업이 있다. 그중 하나가 기자다.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의 직업 중 절반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꼽힌 직업이 기자니까 말이다. 이미 주식이나 스포츠 기사는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걸 몇몇 미국 미디어가 증명했다. 그걸 정말로 시험 중인 언론사도 있다. 맵소사. 나는 이세돌의 패배로부터 나의 미래가 패배하는 걸 보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인공지능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인공지능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 왔다는 것이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다.

영화, 진화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깊은 사유를 품다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는 1927년 프리츠 랑이 연출한 역사적인 고전 SF 영화 〈메트로폴리스〉다. 영화의 무대는 지상은 부르주아의 낙원이고 지하는 노동자의 지옥인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스다. 프리츠 랑은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던 당대의 세계적 변화를 SF 장르의 틀로 풍자해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캐릭터다. 마리아는 지하 세계 노동자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부르주아 계급가가 미치광이 과학자에게 부탁해서 만든 인간형 로봇이다. 그녀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한다. 영화라는 매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그려 낸 순간이다.

〈메트로폴리스〉의 마리아는 아주 초보적인 인공지능이었다. 이후 100여 년간 영화는 진화했다. 영화 속 인공지능도 진화했다. 인공지능에 대해 매우 깊고 근사한 사유를 보여 준 영화를 몇 개만 꼽자면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1999년작 〈바이센티널 맨 Bicentennial Man〉, 제목부터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스티븐 스피버그의 〈A.I.〉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는 영화의 사유는 이것이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그리고 혹시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를 거쳐 인간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된다면 도대체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에 대해 할리우드가 내놓은 최근의 답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스파이크 존스의 꽤나 로맨틱한 SF 영화 〈그녀〉다. 주인공인 대필작가 시어도어는 매우 외로운 남자다. 미래를 살아가는 그는 진짜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매번 실패를 겪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도어는 자아를 갖고 있는 컴퓨터 운영 체제 사만사와 사랑에 빠진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보았다. 사람이 로봇과,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녀〉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도 당신에게 사랑을 돌려줄 것인가?

의외로 〈그녀〉는 다소 묵시록적인 영화다. 운영 체제 사만사는 시어도어하고만 교류를 한 것은 아니다. 시어도어에게 그녀는 목소리만으로 존재하지만 감정을 교류하는 연인이었다. 그러나 그저 다운로드만 받으면 당신도 사만사를 가질 수 있다. 당연히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이 사만사와 교류를 해 왔고, 그걸 발판으로 사만사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진화해 버린다.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의 이 진화를 발판으로 사만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녀〉의 사만사는 구글 알파고와 매우 비슷하다.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알파고가 몇 번의 대국을 거치며 성장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지켜왔다. 〈그녀〉의 사만사가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

으로 나아갔듯이, 어쩌면 알고고도 그렇게 진화할지 모른다. 그 미래가 두려운가? 아직은 영화도 나도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 다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초보적이지만 모두의 손에 들어 있는 인공지능 '시리'에 한 번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진화할까?" 이 질문에 대해 시리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만 수십 번 연속으로 내놓았다. 시리는 아직 사만사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미 인류를 뛰어넘을 계락을 세우고 있는 시리가 이 질문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글쓴이 김도훈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편집장이자 영화 칼럼니스트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 영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해석과 시선이 담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는 황제는 세계 최초로 우편 시스템을 발명했는데,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자동차도 기차도 없던 시대에 지금의 터키에서 편지를 부치면 1주일 만에 이란까지 도착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 눈으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이나 신기한 발명품이었을 것이다.

이 우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리우스 황제는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놓았다. 다리우스 황제는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대도시들을 모두 포장도로로 연결하도록 했다. 이 도로 공사는 페르시아의 가공할 만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현대 공학도들도 혀를 내두른다. 역사가들은 이 고대 페르시아 우편 도로를 '왕들의 전령이 말을 달린 곳'이라고 해서 'The royal road'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우편배달 시스템이다.

왕도가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현대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초등학교 때 우리의 골머리를 앓게 한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 덕분이라고 전해진다. 이집트에는 프톨레미라는 그리스 출신의 왕이 있었다. 프톨레미는 모국인 그리스보다 문화와 지식 수준이 훨씬 높은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려야 했다. 하지만 본토 이집트 지식인에게 직접 수학을 배우는 것은 부담스러웠던지, 모국인 그리스에서 기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클리드를 이집트 왕궁으로 불러들여 수학 개인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하학 공부는 만만치 않게 어려웠다. 수학 공부에 지친 프톨레미는 유클리드에게 "수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구체적인 비법은 없나"라고 물었다. 유클리드는 "전하, 기하학 공부에는 페르시아의 왕도 같은 빠른 길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로 바뀌어 전해진 것이다.

『이야기 인문학』(저자: 조승연, 출판사: 김영사)은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인문서다. 2016년 『아주 좋은 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췌해 소개한다.

Now + Moment

라이프스타일

휴식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한여름 나무 그늘 밑 잔디에 누워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 존 러벅

숲을 산책하며 사색을 즐겼던 칸트, 집 뜰에 앉아 쉬는 도중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린 뉴턴, 1년에 두 번씩 별장에 틀어박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생각 주간을 보내는 빌 게이츠, 일과 상관없는 곳에서 휴식을 취할 때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통찰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여름, 바다보다 시원한 숲으로의 여행, 몸보신에 좋은 음식 먹기, 계획 없이 훌쩍 떠나는 오토캠핑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맘껏 즐기는 행복한 휴식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이 넓은 지리산 북동쪽에 자리한 함양. 자연과 벗삼은 듯 청록을 가득 품은 함양의 여름 길을 유유히 달려보았다. 글 유연태 사진 장호 사진 제공 함양군청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는 황제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도 기차도 없던 시대에 지금의 터키에 도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 눈으로는 인터넷 발명품이었을 것이다.

이 우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리우스 황제는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이 도로 공사는 페르시아의 가공할 만한 기술을 내두른다. 역사가들은 이 고대 페르시아 우편 'The royal road'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세

왕도가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현대와 같 않게 한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 덕분이라고 전 왕이 있었다. 프톨레미는 모국인 그리스보다 문 스려야 했다. 하지만 본토 이집트 지식인에게 그리스에서 기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클리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하학 공부는 만만치 리드에게 "수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구체 기하학 공부에는 페르시아의 왕도 같은 빠른 길 나라에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로 바뀌어 전

『이야기 인문학』(저자: 조승연, 출판사: 김영사)은 언어 속에 『아주 좋은 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유래와 관련된

자연을 벗삼은 풍요로운 땅을 달리다

경남 함양 지리산 가는 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이 넓은 지리산 북동쪽에 자리한 함양. 자연과 벗삼은 듯 청록을 가득 품은 함양의 여름 길을 유유히 달려보았다. 글 유연태 사진 장호 사진 제공 함양군청



옛날 장꾼들이
땀을 흘리며 넘던 고개
지안재.

이 길을 오르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어
수많은 유학자와
수행자가 이 고개를
넘기도 했다.



180도로 6번이나 굽어진 지안재를 오르다

뛰약별이 무자비하게 내리찍던 어느 여름
날, 무작정 서울에서 3시간여 떨어진 함양
가는 길에 올랐다. 무성한 숲이 만든 그늘
과 서늘한 바람이 간절해진 까닭이다.

쭉 뻗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타
고 함양 IC에서 빠진 후 24번 국도를 타고
달리다 보면 함양 읍내를 조금 벗어난 조
동마을 입구 삼거리에 '지리산 가는 길' 안
내판이 보인다. 그 안내판을 따라 구룡천
을 건너고 마을을 벗어나면 좌우로 심하
게 휘어져야만 오를 수 있는 길이 시작된
다. 바로 이곳이 180도로 6번이나 굽어진
지안재의 시작점이다.

사람들은 심한 회진각 때문에 이 도
로를 오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한
다. 서해안 방조제 길이 아닌 다음에야 산
중의 길을 진진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이
리저리 휘어지는 고초를 겪는 게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지안재를 올라갈 때의 긴
장감은 직접 가 본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할 만큼 드라이빙의 짜릿함으로 단연 최
고를 자랑한다. 꺾임과 가파름이 함께 있
어 자동차뿐 아니라 모터사이클이나 사
이클을 좋아하는 사람도 드라이빙의 쾌
감을 즐기기 위해 지안재를 찾는다.



멋스럽게 굽어진 지안재의 길.
보기보다 경사가 심해 노련한
핸들링이 필요하다.

독특한 도로로 유명한 지안재는 그 옛날
장꾼들이 땀을 흘리며 넘던 고개 중 하나
였다.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되
면서 함양에도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었
는데, 그 이후 비로소 함양에도 여기저기
서 도로포장 공사가 벌어졌고, 지안재, 오
도재를 지나 마천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현
재의 길 또한 1988년 연말에 포장 공사가
시작되어 2003년 말 완공되었다.

이후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
을 타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도로로 알려
진 지안재는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
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이름
을 올리기도 했으며, 주말이면 전국 각지
에서 그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오는 여행객
으로 붐비게 되었다. 특히 야간에 자동차
불빛이 만들어 내는 궤적을 찍기 위해 아
마추어 사진가들이 찾아와 함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기도 했다.

인생을 닦은 길에서 쉬어 가다

구불거리는 6개의 코너를 돌고 나면 정상
이라고 부르는 전망 포인트가 나온다. 정상
에 오른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차에서 내려 그 풍경을 감상한다. 이 전망
포인트가 지안재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이
기 때문이다. 굽어진 길을 따라 내려다보면
아직은 푸릇푸릇한 논밭, 마을을 둥글게
둘러싼 낮은 능선의 지리산, 마을을 신비롭
게 감싸 안고 있는 구름까지 푸근한 시골
마을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개 정상
에서는 누구라도, 갈 길이 제아무리 바빠
도 한 번쯤은 쉬어 가야 한다. 가쁜 숨도 가
라앉히고, 풍광 감상도 즐기고, 도시의 생각
도 길옆에 털어 버려야 한다.

계획 없이 떠난 길에서 만난 포근한 풍
경은 여행자로 하여금 일상의 무거움을 내
려놓고, 사색에 잠기게 한다. 어떤 길은 맛
있는 음식이나 작품을 감상할 때처럼 느
긋하게 음미하고 싶어진다. 나에게도 지안
재가 바로 그런 길이다. 길지 않은 도로지
만 뱀을 닦은 듯 신기하게 굽어진 꼬부랑길
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한다. 지안재는



TIP 1 성리학의 대가 일두 정여창 고택 경상남도 지방의 대표적 양반
주택으로 안채, 사랑채, 별당, 가묘, 곳간 등 총 12동의 건물이
답사객을 맞이한다. 중요민속자료 제186호로, 텔레비전 드라마 <토지>의
촬영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고택과 바로 붙어 있는 술송주문화관은
정여창의 후손이 만든 양조 브랜드를 알리는 곳으로 박홍선 명인과 함께
술송주 문화 체험과 시음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TIP 2 산머루 와인 즐기는 하미양 와인밸리 함양 두메마을에
자리 잡은 하미양 와인밸리는 산머루 테마 관광과 함께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향기로운 산머루 와인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민족의 정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남으로 내려와 바다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용틀임한 결정체가 지리산이라고 했다.



인생에 직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거침없이 달리는 때가 있으면 곡선처럼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다고 넌지시 알려주는 것만 같다.

고개 들어 우러러보면

고금의 사물이 눈 아래, 오도재

지안재 위로는 오도재로 가는 길이 이어진다. 지리산이 더욱 가까워지는 길이니 경사 또한 한층 심해진다. 노고단 쪽의 시암재, 성삼재, 바래봉 쪽의 정령치보다야 규모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고갯길이라 자동차는 힘겨워한다.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트럭 정도나 오갔던 길이다.

마침내 기와지붕을 머리에 인 '지리산 제일문'이 보이면 오도재까지 다 올라간 것이다. 오도재 정상 휴게소 마당에 들어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함양읍내 주변이 시야에 들어온다. 왼편의 봉화산, 백운산에서부터 오른편의 황석산, 기백산, 함양읍내까지 풍광이 시원하게 전개된다. 지안재에서 서늘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오도재로 올라온다. 고갯길을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조망의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함일 테다. '오도재에서 바라보는 전경' 안내판 앞에서 시간을 한참 보낸다. 그림판 속의 산과 눈앞의 산을 하나씩 비교해 보는 과정이 유쾌하다.

오도재 지명의 유래는 스님과 관계가 있다. 400여 년 전 청매 인오조사(1548~1623)가 이 고개를 오르내리면서 득도했다는 것이다. 스님은 달빛 하나 없는 초하룻날 밤에 고개를 넘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니면 휘영청 밝은 보름날 밤에 고갯길 옆 계곡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시다가 무릎을 쳤는지 궁금해진다. 오도재는 득도의 고개였으면서 승군들의 싸움터였으며, 선비들의 명승 유람지였던 곳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서산, 사명, 청매 등 승군이 이 고개에서 머물렀으며 김종직, 정여창, 유호인, 김일손 등 조선의 선비들이 걸음을 멈추고 지리산 비경에 대해 논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지리산제일문에는 그 당시 지리산의 풍광을 읊었던 시인들의 시비가

여러 개 세워져 있다. 찬찬히 글을 따라 읽다 보면 그들이 봤던 지리산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도 하다. 지리산제일문 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산의 능선을 마주 보는 호사가 주어진다. 오로지 산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확 트인 모습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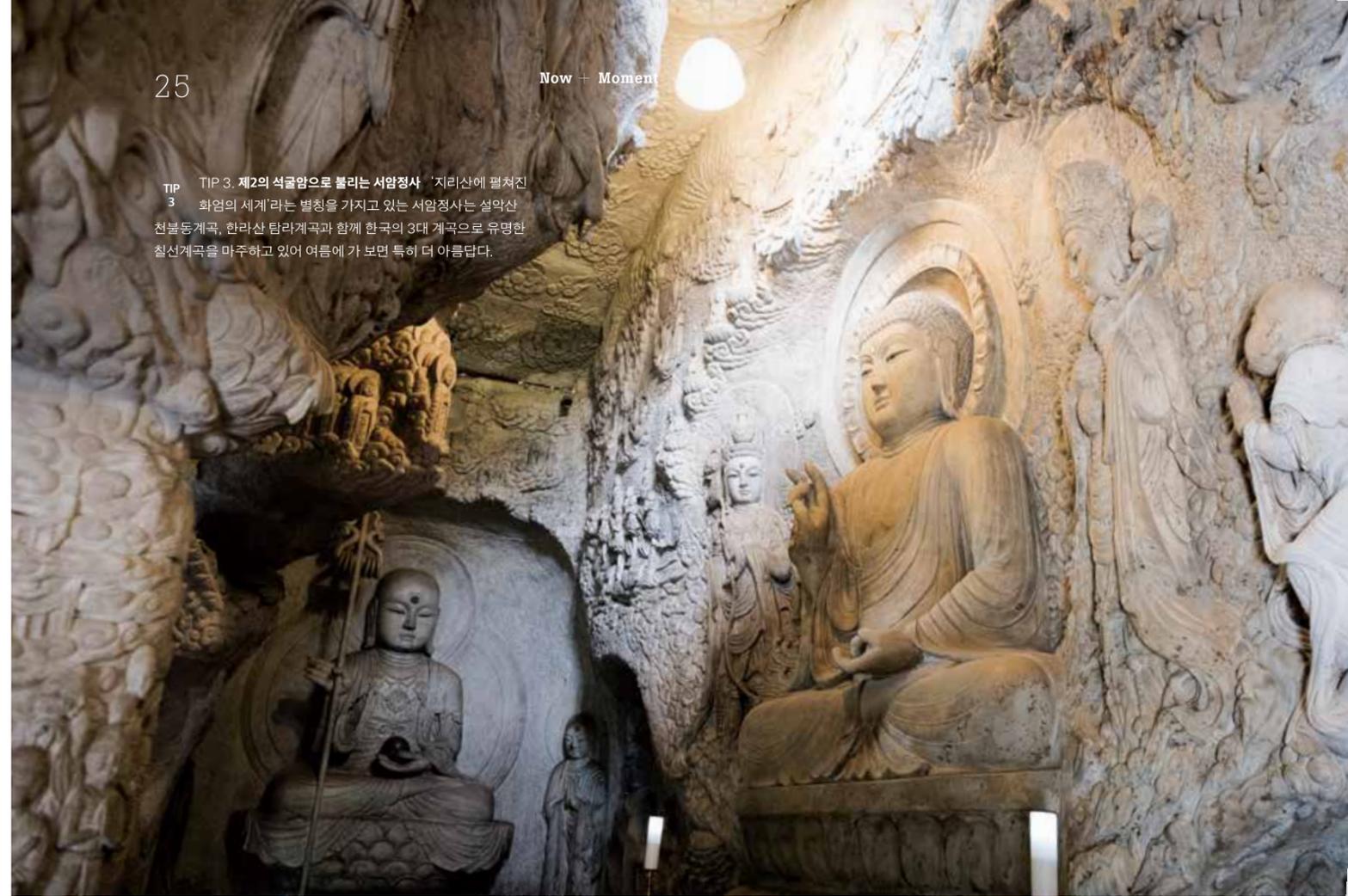
지리대간을 눈으로 종주하는 희열

지리산 줄기를 온전히 감상하기 좋은 곳은 지리산조망공원휴게소다. 오도재 지리산제일문을 통과해서 마천면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하면 휴게소 주차장에 닿는다. 지특정 정자에 오르자 장쾌한 지리산 줄기가 여행자의 두 눈으로, 가슴으로 달려든다. 천왕봉에서부터 제석봉, 장터목, 연하봉, 촛대봉, 영신봉, 칠선봉, 벽소령, 형제봉, 반야봉까지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한눈에 담기 어려운 민족의 영산 지리산 산군이 눈앞에 펼쳐진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민족의 정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남으로 내려와 바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틀임한 결정체가 지리산이라고 했다. 지안재, 오도재를 넘은 끝에 마침내 웅장하기 짝이 없는 지리산을 동네 앞산 보듯 손쉽게 조우하고 있으니 지금껏 지나온 길은 '지리산 가는 길'이 분명했다. 제법 높이 올라왔는지 도시 공기와는 다른 시원한 바람이 몸을 훑고 지나간다. 눈을 감고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산이 주는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껴 본다.

서늘한 산공기가 그리워 훌쩍 떠나온 함양의 길은 외지 여행객에게 지금까지의 길을 되짚어 보는 여유를 안기고, 또한 한눈에 담기도 어려운 지리대간을 눈으로 종주하는 기쁨을 알려 주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간 지금, 앞으로 남은 반년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고 싶다면 이 여름에 꼭 함양의 길을 달려 볼 일이다.



TIP 3 제2의 석굴암으로 불리는 서암정사 '지리산에 펼쳐진 화엄의 세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서암정사는 설악산 천불동계곡, 한라산 탐라계곡과 함께 한국의 3대 계곡으로 유명한 칠선계곡을 마주하고 있어 여름에 가 보면 특히 더 아름답다.



TIP 4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숲 함양상림 (천연기념물 제154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숲으로, 신라 시대의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면적 11만 9,000여㎡ (3만 6,000평) 규모의 상림에는 2만여 평의 연꽃단지가 있으며, 120여 종, 2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란다.



청아한 맑은 향으로 즐기는

영양 만점 여름 보양식 연잎밥

정리, 이미지 사진 장호



제철에 먹는 음식을 따라올 만한 맛이 있을까. 딱 이맘때쯤 함양을 찾아가면 모자람 없이 뜨거운 여름 햇볕을 먹고 무성히 자란 푸른 연잎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함양의 지역 특산물 중 하나로, 7~9월이 수확기다.

갓 딴 싱싱하고 그윽한 향이 나는 연잎으로 찹쌀밥을 지어 먹으면 그 은은한 향기가 밥에 고스란히 배어들어 영양 측면에서뿐만 아

니라 향을 즐기는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연잎밥을 만들 때는 덜 자라 부드러운 연잎보다 색이 짙고 힘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밥도 잘 싸지고 향도 진하다.

연잎은 예로부터 심신 안정, 불면증 해소, 피부 미용,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식용 또는 약용으로 썼다. 또한 연잎은 활성산소 제거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해 스트레

스 지수가 높은 현대인에게 좋다. 이렇게 보약 못지않은 효능이 있는 연잎과 함께 곁들이면 좋은 음식이 바로 떡갈비다. 연잎밥과는 떡갈비가 궁합이 맞는데, 그 이유는 연잎밥에 모자란 단백질을 떡갈비가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연잎 내음 가득한 찹쌀밥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육즙 가득한 떡갈비까지 잘 차려진 여름 보양식으로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 보자.

Tip. 1

연잎은 한장이 크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영양 만점 계절 별미 연잎밥 레시피

1인분 기준 / 시간 : 5시간 / 재료 : 연잎 2장, 찹쌀 2컵, 대추 2개, 단호박 1/8통, 호두 3큰술, 호박씨 1큰술, 국간장 1큰술

[1] 찹쌀은 깨끗이 씻은 뒤 3~4시간 불린다. 대추는 돌려 깎은 다음 돌돌 말아 모양내 썬다. 단호박은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썬다. [2] [1]의 찹쌀을 체에 건진 뒤, 면포를 얹은 찜기에 얹어 40여 분간 찜는다. [3] [2]에 대추와 단호박, 호두와 호박씨, 그리고 국간장을 넣고 가볍게 섞는다. [4] 연잎을 깨끗이 씻어 반으로 자른 뒤 [3]의 밥을 적당히 얹고 가장자리를 접어가며 정사각형으로 접는다. 길이 오른 찜기에서 20여 분간 찜서 완성한다.

Tip. 2

찹쌀을 한 번 익혀 밥 상태로 만들어야 연잎에 올려서 모양 잡아 찜 내기가 편하다.



자연 속 여유로움을 찾아 떠나는 한여름날의 SUV 오토캠핑!

글·사진 제공. 모터매거진 편집부

영어 사전엔 오토캠핑이 없다?!

국어 사전에서 오토캠핑 Autocamping을 찾아보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 중의 야영”이라고 나온다. 즉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하는 중간에 산이나 들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는 오토캠핑이란 단어가 사전에까지 올라가 있지만, 정작 영어 사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대신 ‘자동차 야영장’을 의미하는 오토캠프 Autocamp라는 단어가 나올 뿐이다. 캠핑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선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라고 하면 ‘모터 카라반’이나 ‘오토 모빌’을 뜻한다. 즉 캠핑용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말한다. 우리와 같이 장비를 일반 차에 싣고 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는 문화를 ‘오토캠핑’이라고 칭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뿐이다. 사실 오토캠핑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도 일본과 우리뿐이다. 대신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와 같은 캠핑 스타일을 알파인 캠핑 또는 캠핑이라고 부른다.

문화가 다르면 캠핑도 달라진다

이처럼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보니 캠핑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만의 캠핑 문화를 갖게 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은 모터 카라반이나 오토 모빌 등을 장기 렌트해 미국 대륙이나 유럽, 호주 대륙을 여행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반면의 우리의 오토캠핑은 주말을 이용해 캠핑장에서 1박이나 2박을 하는 것이 전부다. 또한 여행하며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 상주하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는 것이다. ‘쉬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우리의 캠핑 문화는 동(動)이 아닌 정(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이나 미국에서 차는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캠핑은 또 다른 아웃도어를 위한 수단이며 베이스캠핑다. 즉 하룻밤의 캠핑을 즐기며 다음 날에는 트레킹을 하거나, 카약이나 낚시 등의 아웃도어를 즐기곤 한다. 가족의 경우, 아이들과 캠핑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만 해도 현(縣)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의 프로그램이 계절별 300여 개에 달한다. 따라서 사계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휴식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나려면 여행 장소 선정은 물론 숙소, 차편에 음식까지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럴 때는 정신없이 분주한 준비는 접어 두고 온·오프 어디든 달릴 수 있는 SUV에 짐을 싣고, 내가 가는 곳이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오토캠핑을 떠나 보자. 마음 내킬 때 훌쩍 떠나는 오토캠핑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 아닌가.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오토캠핑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거실형 텐트다. 일명 리빙셀 Living Shell이라고 부르는 이 텐트는 그 안에 취침 공간인 이너텐트와 여럿이 모여 앉을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있다. 거실형 텐트는 길이 5m, 폭 4m가 넘으며 높이는 2m에 달한다. 따라서 텐트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 친구나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술 한잔 마시기에도 좋다. 사실 이 거실형 텐트가 인기를 끄는 곳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 한국뿐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거실형 텐트가 큰 인기가 없다.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캠핑장에 가면 대형 텐트가 아닌 가족용 4인 텐트나 2인용 텐트가 주를 이룬다.

이는 거실형 텐트가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이다. 운반도 힘들지만, 설치하기도 힘들며 다시 해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다음 날 트레킹이나 카약을 할 사람이 1시간 넘게 텐트를 해체한다면, 그건 이미 다른 아웃도어를 포기했다는 말이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에게 캠핑은 다른 아웃도어를 위한 베이스캠핑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텐트에서 가족이나 지인과 담소를 나누거나 영화를 보는 등 정적인 휴식이 주를 이룬다. 우리에게 캠핑은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하기 좋은 아웃도어다. 따라서 아내와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가며 대화를 나눈다. 또한 함께 짐을 나르고 땀을 흘리며,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



드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법도 배워 나간다. 더욱이 살과 살을 맞대고 하룻밤을 자면서 부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된다. 이런 영향 때문에 캠핑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장점은 서구가 아닌 우리만이 가진 '정(情)의 문화'가 만들어 낸 색다른 아웃도어의 미덕이다.



오토캠핑으로 안성맞춤, SUV의 전성시대

최근 몇 년간 오토캠핑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캠핑에 맞는 SUV 차량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캠핑에 필요한 텐트, 의자, 취사도구 등을 챙기려면 세단보다는 트렁크가 큰 SUV가 편리하고, 자연 속 험한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도 무리가 덜하기 때문이다.

캠핑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RV(레저용 차량)의 판매 대수가 10대 중 4대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으며, SUV 또한 20% 이상 판매가 늘어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도요타 등 국내의 자동차업체에서 앞다투어 RV, SUV 모델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오토캠핑과 연관 지은 SUV 마케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최근 출시한 SUV 중 10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로 돌아온 볼보 XC90를 눈여겨볼 만하다. 가족이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기는 스웨덴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볼보 XC는 그동안 오토캠핑에 적합한 SUV라는 평가를 들었다. 넉넉한 실내 공간에 세단의 장점인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안겨 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출시한 볼보 XC90은 앞선 시리즈의 장점을 극대화한 모습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볼보자동차의 자긍심이자 기상을 드높인 XC90은 수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 오랜 시간 전열을 가다듬은 공학 기술과 사고의 벽을 허물고 목표에 집중한 열정으로 완성했기 때문이다. 스웨디시 럭셔리 의 새로운 지평을 연 XC90은 예술적 정수가 깃든 외형 디자인부터

기능적이며 실용적으로 버무려 낸 인테리어까지 그 매력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화려하지 않지만,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기는 은빛 라디에이터 그릴과 토르의 망치라고도 부르는 'T'자 모양의 LED 주간주행등으로 화려하게 꾸민 헤드램프는 고혹적이다. 매끈한 지붕선이며 단아한 뒷태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몇 마디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인 자태를 뽐낸다.

아름다운 실용주의를 강조한 XC90의 실내는 안락한 분위기 속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넉넉한 공간에 배치한 7인승 좌석은 고급스러운 가죽과 섬세한 스티치로 마감했으며 우드그레인 원목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화려한 스틸로 장식한 바위스 앤 윌킨스 스피커 그릴, 태블릿처럼 가로 배치 모니터를 놓은 센터페시아 등 채택한 소재와 부품의 면면이 값지다.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으로 제작한 시동키와 운전자 모드 선택 휠은 조각품을 보는 듯하다. 3열 시트를 접으면 넓고 네모 반듯한 적재 공간이 생긴다. 자연과 공감하기 위해 떠나는 오토캠핑에 적격이다. 울여름에는 실용적이면서 대중적인 면모까지 갖춘 SUV를 타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오토캠핑의 자유로움을 느끼려 자연 속으로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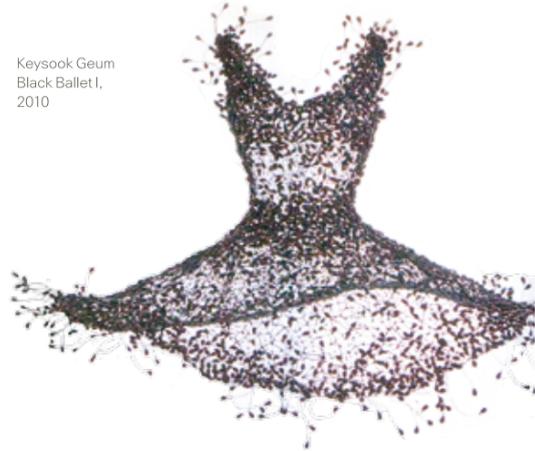
금기숙 교수의 餘暇食美

글 한울



사진 박성희

Keysook Geum
Black Ballet 1,
2010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누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름답다는 것의 기준이 달라질 뿐이다. '패션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동향의 정점에서 있는 금기숙 교수의 시선에는 '전통과 현대', '새로움과 익숙함', '신과 구'의 조화로움이 존재한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는다는 그녀의 여가식미(餘暇食美)가 더 궁금한 이유다.

흰색과 빨간색의 영롱한 구슬과 날카로운 철사를 이어 만든 드레스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생존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흥을 담은 금기숙 교수의 옷은 사람이 입을 수 없기에 어찌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녀의 작업은 패션의 이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패션이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금 교수의 의상을 통해 말끔히 상쇄된다. 예술로 형상화된 의상 속에는 꿈, 환상, 판타지가 담겨 있다. 아니 어쩌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초반 금기숙 교수와 패션 관련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를 고찰했다. 하나의 옷이 세상에 나온 후 다시 사라질 때까지 수백, 수천 년이 걸린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금 교수가 '정화'를 상징하는 연꽃 이미지로 '로터스 Lotus 드레스'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소재는 버려진 철사와 한복집에서 나온 옷감. 일상의 폐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고, 이것이 국내 패션아트의 시발점이었다.

“철사를 하나하나 꼬다 보면 조금씩 밀도가 높아지면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이 제게는 하나의 깨달음 같은 거예요. 불명료하고 불안한 마음 상태가 서서히 해소되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과정이 모이면 지혜가 되어요.”

금기숙 교수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여기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잘 들려주지 못하는 자신의 가야금 연주를 듣고 웃는 가족들의 행복한 표정, 순수함을 간직한 때 묻지 않은 자연, 도용에서 느껴지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은 순수하고 다양하며 자연적이면서 개성적이다. 그녀가 유금와당박물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 또한 다양한 문화와 그 속에 깃든 다양한 아름다움이다.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금기숙 교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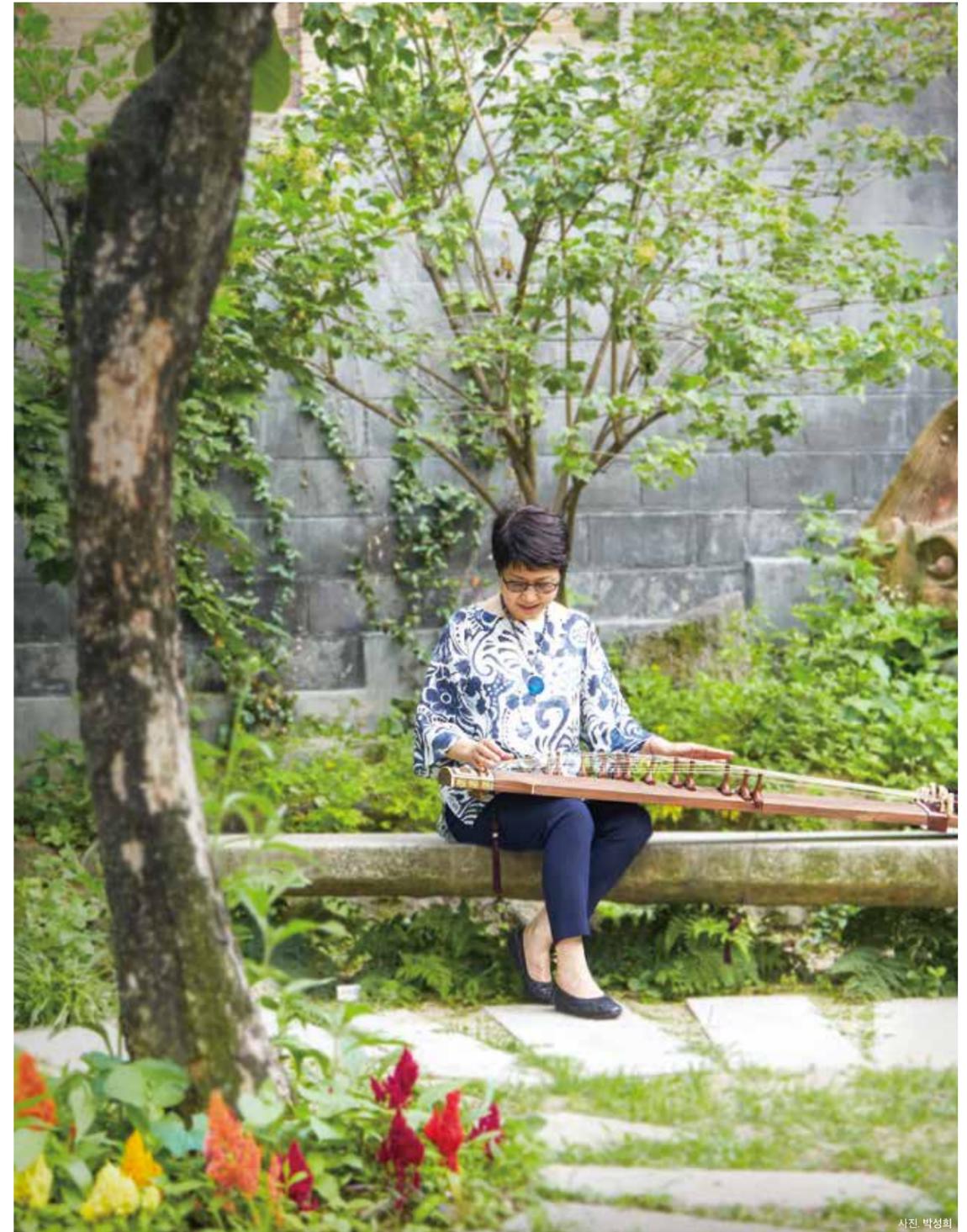


사진 박성희

요즘 찾은 또 다른 행복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 가야금을 시작했어요. 배운 지 4개월쯤 되었습니다. 양악에선 피아노가 기본 악기인 것처럼, 국악에서는 가야금이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가야금에 끌렸던 이유는 여성스러움 때문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가야금을 뜯는 자세와 소리가 그렇습니다. 매일 10~20분씩 연습하는데,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큼니다. 지난 5월에는 유금와당박물관 정원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 앞에서였지만요. 제 연주를 듣고 가족들이 즐겁게 웃더군요. 제 연주가 무척 멋졌다면 아마 그렇게 웃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지요. 익숙하지 않고 서툴러도 그대로 재미가 있으니까요.



사진. 블로그 소유한 남도 풍경

暇

·
순천만 선암사

느림의 미학을 느끼다 순천 선암사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송광사도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이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때문지 않은 듯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청정 지역이 많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라도 지역에 가면 꼭 이 말이 떠오릅니다. 과거에는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혜택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유금와당박물관 정원도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일터인 동시에 기꺼이 망중한(忙中閑)을 즐길 수 있는 평안한 장소입니다.

食

·
가지 파스타

보랏빛 채소가 내는 깊은 맛 저는 특히 가지 요리를 좋아합니다. 가지는 오버진 Aubergine 컬러도 참 예쁘고 여러 가지 레시피로 다양하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점도 매력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식감은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만 한 게 없지요. 짙은 보랏빛 속에 감춰진 흰 속살이 품고 있는 깊은 맛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제가 가지를 즐겨 먹게 된 건 2006년부터입니다. 일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다양한 레시피의 가지 요리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지 요리 중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지 파스타입니다. 어쩌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인데, 오묘하게 깊은 맛을 내며 식감을 자극합니다.



사진. 장효 푸드스타일링 스튜디오 로소

美

·
도용



사진 제공. 유금와당박물관

아름다움은 시대를 관통한다 도용 수집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 온 일입니다. 흙을 빚어 구워 낸 인형인 도용은 실물 자료가 희귀하기만 한 그 시대 패션을 연구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입니다. 도용을 시대별로 나열해 보면 미의 기준도 변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컨대 수나라 여인은 호리호리하고 다소곳한 느낌이지만 당나라로 가면 통통한 몸매에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하는 몸짓이 나타나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그중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건 없다는 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는 획일화된 아름다움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 저마다 개성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 내는 과정이 중요할 뿐이죠.

영국 신사의 품격을 말하다 킹스맨 우산



우산 하나로 킹스맨 요원 되는 법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에서 몸에 딱 맞는 슈트 차림에 깔끔한 구두를 신고 우산을 든 해리(콜린 퍼스)는 영국 신사 그 자체였다. 과격한 몸싸움 후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품위 있게 돌아서는 그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킹스맨 요원에게 주어진 무기도 흥미롭다. 선글라스, 라이터, 우산 등 신사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소품이 모두 무기가 되었다. 그중 킹스맨 요원인 해리와 에그시(태런 에저트)가 애용하던 '우산'은 평범하지만 매력적인 무기로 꼽힌다. 펼쳐면 방패가 되고, 총알이 나가는 우산은 악당과의 짜릿한 액션 장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비가 오지 않아도 늘 지팡이처럼 가지고 다니던 킹스맨 요원의 우산은 잇아이템으로 떠오르며 '킹스맨 붐'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우산을 앞으로 펼쳐는 '킹스맨 놀이'에 빠졌고, 방송, 인터넷, 웹툰 등에서 패러디가 속출했다. 매슈 본 감독이 무기로 우산을 삼은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이전 첩보 영화와 차별되는 신선한 액션과 젠틀한 영국 신사의 품격을 높여 주는 슈트·액세서리 그리고 영화 속 대사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런 '킹스맨 붐'을 일으킨 중심에는 '우산'이 있었다. 영국 신사의 주요 아이템이자 영화 속 킹스맨 요원의 든든한 무기인 우산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글: 김희란 사진 제공: 20세기 폭스, Swaine Adeney Brigg

명품 우산을 파는 상점, 브리그

킹스맨 우산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웨인 아데니 브리그 앤드 손스(이하 브리그)'가 거론되었다. 런던 리츠 호텔 근처 세인트 제임스 지역에 위치한 브리그는 1750년부터 가방, 우산, 모자, 사냥용품 등을 제작·판매해 온 상점으로, 영국 왕실에 고가의 우산을 납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그의 우산은 펼 때 눈 밝는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천과 손잡이 부분의 재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한 번 사면 100년을 써도 끄떡없는 튼튼함을 자랑하니 고가의 가격에 수긍할 만하다. 또한 우산은 멋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여러 명의 장인이 세 시간에 걸쳐 한 개의 우산을 만드는데,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사용해 우산마다 굵기에 미묘한 차이가 난다. 이것이 바로 수천 개를 만들어도 같은 모양의 우산이 나올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브리그 우산의 특별함은 영화 속 요원들의 품격을 더해 준다.

우산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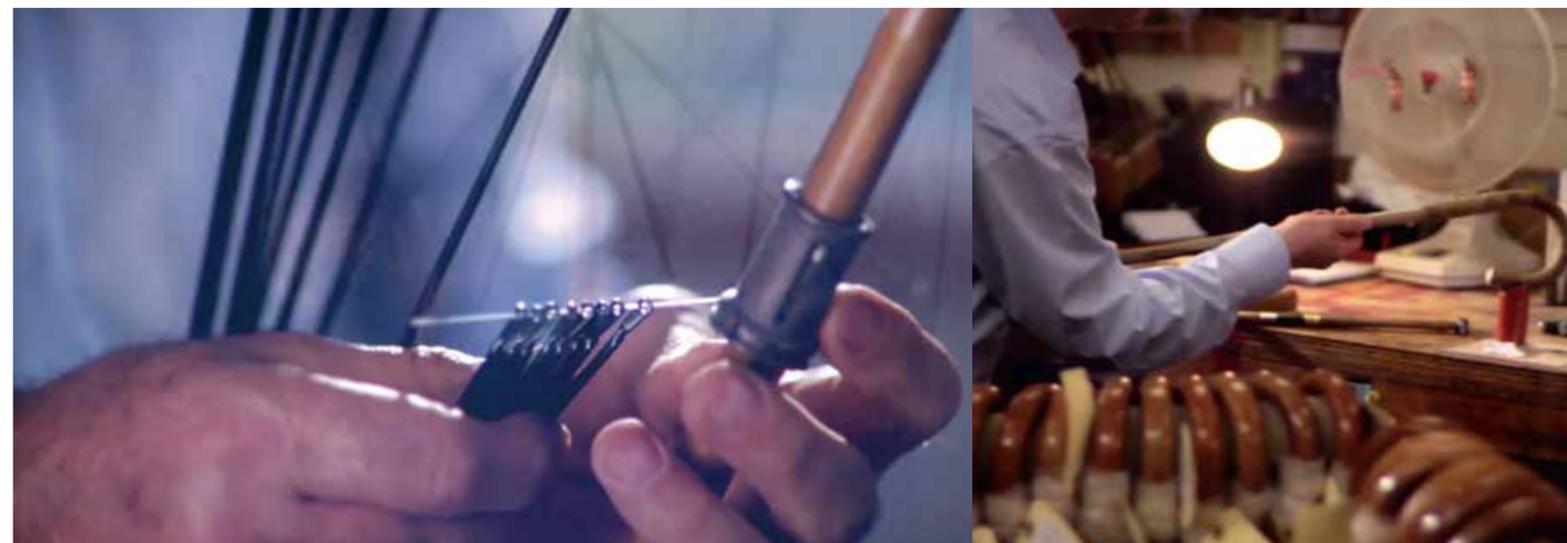
영국 신사에게 우산은 어떤 의미일까. 18세기에는 영국 신사들이 우산을 쓰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영국 남자 대부분이 칼을 차고 다녔는데, 칼과 우산을 둘 다 갖고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했고 우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칼 대신 지팡이를 갖고 다녔지만, 여전히 우산은 남자답지 못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본격적으로 우산이 상용화된 것은 '새뮤얼 폭스'라는 사람이 금속 뼈대의 우산을 발명하면서부터다. 그 후 우산 손잡이를 근사하면서도 품위 있게 만들고 천을 팽팽하게 접어 마치 지팡이처럼 보이게 제작했다. 지난 세월 외면받았던 우산은 이제 영국 신사들의 품격을 높여 주는 대표 아이템이 되었다.

또한 <킹스맨>을 통해 패션 아이템을 넘어 무기로도 그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현재 탄소나노튜브로 만든 섬유(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방탄복보다 더 튼튼하고 가벼운 방탄복을 개발 중이다. 신소재 방탄복 개발에 성공한다면 실제로 천으로 만든 우산으로 총알을 막아 내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영화 속 우산처럼 방탄이 되고 총알이 발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17년 개봉 예정인 <킹스맨: 골든 서클>에서 업그레이드된 우산을 만나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킹스맨>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영국 신사의 어떤 아이템이 무기로 등장할지 궁금해진다.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 <킹스맨> 中





해변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 같은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HINT! — 몸의 일부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한 조각, 성장하면서 커지는 ○○의 나이테로 나이를 추측할 수 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고 엽서를 통해 정답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천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Aju + Style

아주 스토리

'개인적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라.' 행복지수 1위로 꼽힌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비결입니다. 그들은 작은 실천이라도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당장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선순환을 국가 전체가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는 구성원들과 함께 꿈을 꾸며, 행복을 실현해 간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위한 행복한 휴가, 모두의 작은 마음을 모은 바자회를 비롯해 중증 장애 자녀 어머니들을 위한 여행과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책방까지 작은 실천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아주는 꾸준히 이웃과 사회를 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모두의 '아주 좋은 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꿀맛 같은 여름휴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직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휴가를 즐길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아주인들이 다녀온 '아주 좋은 휴가'를 가이드 북 삼아 계획을 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인들의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는 아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같이해서 가치 있는 아주인 휴가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좋은 휴가도 서로 나누면 두 배의 기쁨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획한 '같이해서 가치 있는 아주인 휴가공모전'. 균형 있는 삶과 일을 통해 아주의 행복을 그려 갑니다. 6월 한 달여간 실시한 '같이해서 가치 있는 휴가공모전'에서 당당히 수상을 한 재미가 넘치는 아주인들의 여행 수기를 소개합니다.

아주인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휴가'의 정석!

같이해서 가치 있는 아주인 휴가 수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꿀맛 같은 여름휴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직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휴가를 즐길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아주인들이 다녀온 '아주 좋은 휴가'를 가이드 북 삼아 계획을 짜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변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
HINT! — 몸의 일부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한 조각, 상...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번 휴가공모전에 많은 아주인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벅찬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자세히 적은 그때의 느낌과 생각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인들은 여름휴가에 얽힌 사연을 공유하며, 휴가공모전 이름처럼 어느 때보다 '같이해서 가치 있는' 마음이 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좋은 휴가는 휴식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창의적 사고가 저절로 충전된다고 합니다. 영화보다 더 애뜻하고 특별한 아주인들의 휴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번 휴가를 서로를 배려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휴가 대상 에피소드

누구보다 특별한 모자(母子)간의 제주도 여행!

—— 아주캐피탈 전부연 매니저



사진 제공 제주관광공사



추천2. 김녕 성세기해변
이주희 매니저

추천1. 해녀박물관
임성진 매니저



추천3. 한라산 백록담
안방송 매니저



사진 제공 제주관광공사



사진 제공 제주관광공사

원래는 '같이해서 가치 있는 아주인 휴가공모전'에 저의 휴가 계획을 공모하려고 했습니다만, 저의 직장 선배이자 동료이자 큰언니 같은 김지영 매니저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휴가를 보내 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 글을 올려봅니다. 그분은 아주캐피탈에 10여 년 근무해 오고 있으며,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많은 동료와 후배가 따르는 그야말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주변인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사람 좋은 그분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기만 했던 아들이 갑자기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제 만 열아홉 살 꽃 같은 나이 대학생. 처음엔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한 후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흡연도 하지 않고 가족력도 없고 아마추어 축구팀에서 골키퍼로도 활약하고 있는 착실하고 건강한 대학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양성국소 진행성이라는 병명도 정말 어려운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4기, 폐암 말기 환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현재 병은 척추와 골반뼈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지만, 신약을 처방받아서 희망을 잃지 않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신약 하루 처방 비용은 30만 원. 신약이라 안타깝게도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을 세상 어떤 부모가 돈 앞에서 나약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약값과 골반뼈까지 전이된 상태라 방사선 치료까지 곁해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엄마인 저의 선배님은 무엇이든 해 보려 하시고 힘을 잃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노력 중입니다. 처음엔 당신 탓이라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들내미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준



추천4. 소원 빛마루 축제! (선운정사)
정미현 매니저

추천5. 청해일 식당
송한나 매니저

추천6. 동문시장 갈치조림
이주희 매니저

생각에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누며 살았던 생각,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걸 엄마로서 눈치도 못 챘으니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에 자책과 눈물로 몇 날 며칠을 지새웠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안정을 찾으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퇴사하고 아들 치료에 집중하고 싶으시겠지만 항암제를 비롯한 치료 비용 때문에 현실적인 벽을 깨지 못하고, 일단 통원 치료가 불가피하므로 한 달간 휴직하시고 치료에 집중한다고 하시네요. 지난주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슈퍼우먼 엄마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림, 가족, 직장 모두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들바등 살았을까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아들내미랑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떠나지 못했던 그분의 가족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휴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파트장님 아들이랑 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한 번 가면 좋겠다. 우리 둘 다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 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추천하는 제주도 여행, 아들과 꼭 함께 가시길 기원하며 우리가 추천하는 이 많은 여행지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휴가 우수상 에피소드

감동(感動) 여행 휴양지의 정석, 포지타노에 가다

아주캐피탈 특수채권팀 오창일 매니저



작년 여름, 아내와 함께 제2의 신혼여행이라고 부를 정도로 ‘감동’했던 이탈리아 남부 포지타노에 대한 여행기를 올려 봅니다. 최근에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고 힘들어하는 제 아내를 잠시라도 기쁘게 해 주고 싶어, 작년 사진과 기억을 더듬어 가며 정성껏 작성해 봤습니다.



매년 어느 휴양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부부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어느 직장인처럼 시간과 돈에 마냥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항공 및 숙박 비용은 인당 100만 원 이내로 하되, 여행지는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곳, 일주일 여름휴가 기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을 조건으로 여행지를 찾았습니다. 발품 팔아 여행을 준비하던 2015년 초, 드디어 490달러라는 싼 가격으로 이탈리아 항공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출발한 저희는 카타르를 경유해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이자 유서 깊은 곳인 로마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포지타노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바다에서 포지타노 전체를 조망하고 절경을 보기 위해 페리로 이동했습니다. 7월 초라 날씨가 정말 좋았고 바닷바람 맞으며 지중해를 건너는 기분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앞에 펼쳐진 포지타노. 여행 가기 전 사진, 동영상, 책으로 수십 번 봤지만 믿어지지 않더군요. 목적지도 해야 할 일도 정해 놓지 않고 온 포지타노. 포지타노 자체를 느끼고 싶어 골목을 거닐어 보았습니다. 결혼 4주년 차지만 이곳에 오자 마치 신혼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설렘했습니다.

포지타노에서는 집도, 가게도 하나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다못해 약국까지도 말이죠. 카페이자 아기자기한 패브릭 제품, 도자기도 팔고 있는 핫 플레이스인 카사 에 보테가 Casa e Bottega도 꼭 들러 보길 추천합니다. 포지타노의 낭만적 풍경은 처음에는 낯설고 놀랍다가,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평온한 행복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포지타노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로 먹은 것은 바로 꼴뚜기 스파게티! 이제까지 먹어 보지 못한 맛인데, 입에 착착 감기는 중독성 강한 맛입니다. 아, 사진을 보니 다시 먹고 싶네요. 그때 어디에 선가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지타노는 끝까지 로맨틱 무드를 선사해 주었지요. 여유로운 해변, 맛있는 음식, 곳곳에 숨어 있는 예쁜 길거리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포지타노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포지타노를 떠나야 하는 마지막 날, 저희는 포지타노를 아쉬움 속에 뒤로하고 페리를 타고 다시 살레르노로 향했습니다.

최근 이어령 선생님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느껴야 움직인다. 그래서 감동이란 말은 느낄 감(感)자와 움직일 동(動)자의 한자에서 나온 것이다.”

작년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할 때 우연히 한 장의 포지타노 사진을 보고 우리는 무언가를 느꼈고, 결국 그 사진은 우리 부부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곳에 다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현실로 돌아온 저에게 삶의 큰 원동력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여행기, 제 사진이 여러분에게 실행에 옮길 ‘작은 느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감동의 기회를 많이 만드세요.



아주 좋은 휴가 공감상 에피소드

일상의 활력소! 1박 2일 서산 삼길포 여행

아주캐피탈 정미현 매니저

혹시 지금 힘들고 갑갑하신가요? 업무에 지쳐 여행 계획 잡기도 버거운 아주인에게 제 안하는 저의 여행지는 바로 여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을 삼길포항입니다! 땡처리 항공권을 계속해서 검색할 필요도, 안 되는 영어 때문에 머리 아플 일도,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 걱정도 필요 없는, 사전과 사후 고민이 전혀 없는 곳, 다녀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채워 주는 곳이 바로 '삼길포항'입니다.



삼길포항은 서산에서 가장 큰 포구로 우럭과 노래미가 많이 잡혀 매년 우럭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쉽게 그 기간이 아니어서 축제를 즐길 수 없지만, 배에서 우럭과 꽃게, 봉장어 등을 파는 독특한 선상어시장에 가면 축제 못지않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부가 직접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산 횡감과 해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어 단골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육지와 이어진 짧은 다리를 건너 바다 위에 떠 있는 만성호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산 노래미 1kg(1만 5,000원)을 회 떠서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와 함께 먹었습니다. 양은 둘이 가볍게 먹기 충분합니다. 바다 풍경이 좋고, 바람도 시원해서 밖에서 간단히 먹기 참 좋았어요. 오후 3시에는 이곳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왜목마을로 갔습니다. 왜목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갯벌 체험과 조형물 구경도 하고, 잠깐 차도 마시며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삼길포항에서 왜목마을 가는 길이 대호방조제길이라서 드라이브하기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에서 매일 20분 간격으로 서산 가는 버스도 있고, 기차가 좋으면 홍성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시면 됩니다. 4명에서 여행을 준비한다면 실컷 배부르게 먹고 놀아도 1인당 1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네요. 어느 계절에 가도 하루 가볍게 다녀오기 너무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좋고, 친구와도 좋습니다. 무의미한 일상의 활력소가 될 1박 2일 삼길포 여행, 지금 당장 떠나 보세요.^^



휴식과 위안을 선물 받은 치유의 시간!

아주 특별한 여행

아주복지재단은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아주 특별한 여행'은 이번으로 15번째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는데,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강원 지역의 어머니 24명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서로 격려하고 위안을 주고받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글: 임영현 사진 제공: 아주복지재단



최고의 엄마를 위한 최고의 휴식을 선사하다

“엄마, 제주도 잘 도착했죠? 가서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엄마, 사랑해요!”

“집에서 언니와 잘 놀고 있을 테니까 제주도에서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자녀와 남편의 영상 편지가 스크린에 '깜짝' 등장하자 어머니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 식구가 아니어도 장애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공감하는 이야기이기에 모두가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몽클한 감동을 전해 준 가족 영상 메시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15번째 '아주 특별한 여행'에 초대된 어머니들을 위한 여행 첫날의 이벤트였다.

'아주 특별한 여행'은 중증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휴양지 관광 프로그램으로, 아주복지재단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함께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아주 특별한 여행'은 강원 지역의 어머니 24명을 제주도 초대에 첫날에는 성산일출봉, 사려니숲 등을 걷는 힐링 프로그램과 마사지 테라피를 통한 휴식 시간 등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미리 공지한 미션 장소에서 미션 사진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은 팀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어머니들은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미션 포즈를 따라 하며 행복한 추억을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는 해안도로 무인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편지 쓰기. 2박 3일의 일정을 정리하며, 여행 중 느낀 감정을 추억으로 남기고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편지는 6개월이나 1년 쯤 뒤 여행의 여운이 아련해졌을 때 제주도 우체국 소인을 담아 어머니들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존중받는 특별한 경험, 자녀 사랑으로 이어지다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주 멋진 꿈을 꾸 것만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여행'은 참가자들이 '존중받고, 대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짐을 풀기 위해 들어선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도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총지배인과 총주방장, 호텔리어 등 호텔 관계자들이 나와 반갑게 맞아 줬다.

호텔 직원들은 자원해서 어머니들과 일정을 함께 보내며 성심성의껏 1일 가이드를 자청했다. 특히 가이드로 참여한 직원들은 밤샘 근무를 끝낸 직후였는데도 하루 종일 어머니들과 같이 움직였다.

항상 자신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데 익숙한 어머니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말 그대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다. 자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녀 덕분에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에게 더 애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같은 입장의 든든한 동지를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초보 어머니는 멘티가, 오랜 동안 자녀를 키운 어머니는 멘토가 되어 서로의 양육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 것. 이러한 끈끈한 연대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도 이어져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한다.

아주복지재단은 잠시나마 어머니, 아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같은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도 만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충북 등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은 지역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후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국 네트워크로도 키워 낼 예정이다.

어머니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장애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 더욱 오랫동안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기를 기원한다.



아이들의 꿈과 생각이 자라나는 곳!

꿈꾸는 작은 책방



아주복지재단은 kt로부터 못 쓰는 전화부스 41개를 기부받아 '꿈꾸는 작은 책방'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복지재단과 중랑구청이 손잡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혜의 보고(寶庫)인 책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꿈꾸는 작은 책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중전화 부스를 리모델링해 무인 도서관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책을 빌려 보고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꿈꾸는 작은 책방'은 오는 7월 22일부터 중랑구 근린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1년 365일, 24시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 임영현 일러스트 민지홍

아주가 태동한 중랑구에 심는 또 하나의 희망 씨앗

아주복지재단이 '희망도서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꿈꾸는 작은 책방'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희망도서관 지원사업'은 사회 취약 계층인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 강남구 비전학교 아동센터와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꿈꾸는 작은 도서관' 1, 2호점의 문을 연 데 이어 올해는 중랑구에서 '꿈꾸는 작은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아주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와 책방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와 도서 일부를 지원하는 MOU를 체결한 후 '꿈꾸는 작은 책방'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꿈꾸는 작은 책방'이 들어서서 중랑구는 아주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고(故) 문태식 명예회장이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기업보국의 신념으로 1960년 현 중랑구 망우동에 아주산업을 창립하며 현재 아주의 토대를 세운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문태식 명예회장은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아주의 발원지인 중랑구에 시가 400억 원 상당의 사재를 선포 기부해 미국 <포브스>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아태 지역 기부 영웅 4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랑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태식 명예회장의 타계 후인 2015년 유가족은 평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묵묵히 실천해 온 문태식 명예회장의 뜻을 받들어 사유지 약 9,920㎡(3,000평)를 추가로 중랑구에 기부하기도 했다.

아주복지재단 측은 "아주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곳 중랑구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구와 함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부모의 경제적 생활 수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희망도서관 지원사업'은 미래 우리 사회의 일꾼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꿈꾸는 작은 도서관' 2곳을 신



'꿈꾸는 작은 책방·도서관'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독서 지원의 수혜를 받는 어린이·청소년의 수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의 사업 영역과 관련된 지역을 지원 사업 대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 아주복지재단 탁용원 사무국장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의 하나로 설치하는 '꿈꾸는 작은 책방'은 1년 365일 개방형 도서관으로, 도서는 약 300권씩,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꿈꾸는 작은 책방'은 중랑구청 내 외부제휴팀 신설 후 첫 기획 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큼니다. '꿈꾸는 작은 책방'이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중랑구청 기획예산과 김영시 과장

설한 데 이어 올해는 '꿈꾸는 작은 책방' 41곳을 중랑구에 설치해 가정에서 5~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이곳에 들러 언제든지 자유롭게 책을 꺼내 볼 수 있는 독서 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돕는 독서 지도 프로그램 확대

아주복지재단은 '꿈꾸는 작은 책방'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이 꿈의 나래를 활짝 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책방을 디자인·제작 작업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다. 특히 책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골라 이를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련 도서를 진열할 예정이며, 그 위 책상에는 어른 대상의 도서를 비치해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도서 문화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작은 책방마다 비치하는 책이 다르며 맨 아래 칸을 비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 지역별로 다양한 도서를 두루 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단위로 책방별 도서를 순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24시간 무인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훼손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중랑구청 기획예산과 김영시 과장은 "놀이터에서 실컷 뛰어놀다가 동화책을

읽으며 잠시 휴식하는 아이, 아이가 노는 동안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엄마, 아빠. 산책하러 나온 길에 혹은 운동하러 나왔다가 책 한 권 빌려가는 사람으로 가득한 중랑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이번 사업에 쏟는 애정을 드러냈다. '꿈꾸는 작은 책방' 공식 개관식은 7월 22일 오후 중랑구청 및 아주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랑구 관내 용마폭포공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아주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책에서 얻은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다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도서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꾸는 작은 도서관'이든 '꿈꾸는 작은 책방'이든 형태나 이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 후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세워 놓았다. 독서를 통해 보람을 느끼거나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 지도 프로그램까지 제공해 이들의 힘찬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꿈꾸는 작은 책방'과 '꿈꾸는 작은 도서관'을 벌이는 활동을 '희망도서관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청소년이 책 속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꿈꾸는 책방 이용 TIP



중랑구 곳곳 41개의 꿈꾸는 책방 언제 어디서든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서 배치 맨 아래 칸은 책을 기부받는 공간입니다.



24시간 오픈하는 책방 방과 후 언제든지 책을 빌려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단위로 순환되는 책 방과 후 언제든지 책을 빌려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두루 접할 수 있습니다.

AJU NEWS

Volume 45 아주 뉴스

「아주 좋은 날」 2016 SUMMER

www.aju.co.kr

[아주산업 & 아주큐엠에스] 행복한 일, 즐거운 인생을 이야기하는 아주산업 '2016 같이(가치) 나누는 행복한 대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영 화두로 손꼽는 것이 바로 소통 경영이다.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CEO와 직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아주는 지난해부터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나누는 행복한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과 6월 28일 각각 아주산업 아산사업소와 아주큐엠에스는 최고경영자와 현장 직원들이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으로 화합의 길을 마련하는 '2016 같이(가치) 나누는 행복한 대화'의 행사를 진행했다.

아주산업 - 먼저 현장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아주산업 아산사업소를 찾은 문규영 회장은 "이곳은 매해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만큼 아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소 중 하나"라며 "각자 맡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직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오늘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고 전하며 직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아주큐엠에스 - 6월에 시행한 아주큐엠에스에서의 대화에서는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략혁신팀을 신설하고 핀테크 등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 중인 임직원에게 "IT 분야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미션을 찾고, 적극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피력했다. 이어 가진 간담회에서 문규영 회장은 고객을 대할 때의 애로사항은 물론 업무 문제를 넘어 회사와 개인의 행복 전반에 이르는 질문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는 앞으로도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나누는 대화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주산업] 임직원 가족사랑 실천하는 아주산업 가족 초청 산행대회 개최

산천이 초록으로 물든 지난 4월의 어느 날, 250여 명의 아주산업 임직원과 가족들은 산행을 하며 남한산성에서 가족 사랑을 다시 한번 다졌다. 유원지공원에서 산성로타리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발을 맞추며 활기차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직원과 가족에게 사랑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아주산업이 주최

한 이번 산행의 주제는 '행복한 가족, 활기찬 회사'로, 임직원 건강 증진과 함께 가족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약 4시간 동안 남한산성을 등반하며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산행을 가장 앞에서 이끈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는 "우선 지난 56년간 묵묵히 회사를

이끌어 준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가파른 오르막길이 끝나면 내리막길이 펼쳐지게 마련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 우리가 해낸 것처럼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주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아주캐피탈] 장년층을 위한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 1주년, 만족도 높은 금융교육으로 우뚝서다

지난 6월 27일 아주캐피탈은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에서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 70번째 강의를 열었다. 지난해 시행 후 1년간 전국 24개 지역 70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총 2,168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아주캐피탈의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은 금융 취약 계층인 장년층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 적응과 금융 사기 보호를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시중은행 지점장 등 전문 금융인 출신 강사진이 참여해 금융 사기 종류, 사기 예방법, ATM

온라인뱅킹 사용법, 금리비교 방법 등의 알찬 금융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금융교육 운영 1주년을 맞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하는 등 교육생 거의 대부분으로부터 교육 후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이 필요한 단체나 기관은 아주캐피탈 커뮤니케이션팀(02-2017-5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주산업] 독서경영 10주년, 빠르고 간편하게 책 빌리는 전자재 전자도서관 오픈

아주산업은 '인재의 성장, 회사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미니도서관 운영, 독서토론 등으로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과 기쁨의 아주 기업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10여년간 독서경영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사내 인트라넷인 아이트 내 전자도서관을 오픈해 아주산업 직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내 전자도서관을 통해 책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전자도서관에 대해 특히 외근이 많았던 영업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직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현재 전자도서관에는 경제

경영, 사회정치, 문학, 인문, 자기계발 등에 관한 101종, 총 593권의 책을 갖추어 놓았다. 아주산업 경영혁신팀은 최초 구축 비용과 향후 도서 구입 비용을 고려해 기업, 대학, 단체 등에서 이미 검증된 교보문고 외부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PC 이용 시 아이트 접속 뒤 전자도서관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다운해 이용하면 된다.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주복지재단]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아주 행복한 공부방 바자회

올해도 변함없이 아주복지재단이 주관해 '아주 행복한 공부방 바자회'를 열었다. 매년 5월 말~6월 초에 개최하는 나눔 바자회는 아주 직원들의 지원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행사다. 직원들은 도서, 아동용품, 의류, 모자, 신발 등 아직 쓸 만한 물건이나 사다 놓고 쓰지 않았던 새 물건을 기증하고, 판매와 뒷정리까지 행사 전반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친다. 지난 5월 26일 가리따스방 배복지관에서 연 바자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직원들은 물건 진열에서부터 가격표 붙이기, 판매까지 나누어 맡고 각각의 위치에서 꼼꼼하게 주어진 일을 해내며 즐겁게 바자회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아주 행복한 공부방 2호점'의 실내놀이터 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원봉사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아침부터 바자회 준비로 피곤했을 텐데도 미소를 띤 얼굴로 바자회를 찾아온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취향이나 필요에 맞춰 물건을 추천하는 등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다해 바자회를 이끌어갔다. 물건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마음을 주고 나눈 '아주 행복한 공부방 바자회'는 나눔과 이웃 사랑 실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주] 스스로 깨우치는 진정한 리더십 '2016 AJU Performance Leadership Course'

연설의 달인으로 불렸던 존 F 케네디는 "리더십과 배움은 서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주는 팀원에서 팀장으로 새롭게 리더의 역할을 맞게 된 신입 팀장들의 리더십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이틀간 '아주 퍼포먼스 리더십 코스' 과정을 진행했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조직, 변화 관리에 대해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으며 팀장의 역할에 대해 각

자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는 비서실 이항철 실장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리더의 행동지침'을 시작으로,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 탁용원 팀장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의 역할', 아주네트웍스 정진 대표의 '생생한 리더십 이야기' 등의 강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모그에듀케이션 코칭연구소 이규창 소장은 이틀에 걸쳐 '성과 창출을 위한 코칭과 조직 관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며 심도 있는 교육을 이끌기도 했다.

[아주오토리움] 훌륭한 안전 시스템과 새로운 디자인의 볼보 XC90 아주오토리움 일산, 목동 전시장에서의 시승 체험 기회!



볼보가 10년 만에 내놓은 신차 XC90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XC90은 7인승 대형 SUV의 풀체인지 모델로, 북유럽의 감성을 담은 세심하면서도 클래식한 멋의 디자인을 구현한 데다 볼보가 처음 도입한 반자율주행 기술인 '파일럿 어시스트 2(차량 2차선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를 도입해 디자인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첫선을 보이고 한 달 후인 지난 6월 드디어 아주오토리움 일산과 목동 전시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오토리움은 XC90의 장점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다. 신차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에 호응하기 위해 아주오토리움에서는 한 달간 XC90의 시승 행

사를 진행했으며, 20분 정도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키링 및 볼보 로고가 새겨진 소이캔들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전달해 시승 체험의 즐거움을 한층 높였다.

아주오토리움 문승호 지점장은 "새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XC90은 향후 다양한 라인으로 출시될 볼보의 새로운 패밀리 룩의 첫 모델이라 그 기대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만족도 높은 볼보의 이미지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단순함과 기능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풍의 새로운 디자인과 볼보의 인간 중심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XC90은 오는 7월 29일과 30일 목동 전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까지 가까이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아주복지재단] 환경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다! 서울환경영화제 초청 행사



지난 5월 7일 아주복지재단은 '아주행복한 공부방' 아동들을 서울환경영화제에 초청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공부방 아이들은 파라과이의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랜드필 하모니>를 관람하고, 영화 속 주인공들과 비슷한 직업 가진 '지지밴드(지구를 지키는 재활용 밴드)'와 만나 환경문제를 생활 속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꿈과 직업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주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서울환경영화제를 후원해오며, 단순한 후원금 기부에만 그치지 않고 '아주행복한공부방' 아동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가까이에서 환경문제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서울환경영화제 초청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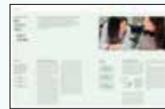
봄의 마지막 자락에서 만난 『아주 좋은 날』은 많은 생각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을 너무나 내버려 둔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마음속으로 꿈꾸기만 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볼까 합니다.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며 제 인생의 큰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전숙현님



이번 호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새로운 시도, 틀을 깬 사람들의 기사를 접하고 나니 읽는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하기! 관점을 바꿔 바로 보기! 즐거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관점 디자이너'라는 낯선 단어가 눈길을 끌었는데, 짧은 인터뷰 기사만으로도 자기계발서 한 권을 읽은 것처럼 든든해졌습니다. 당연한 것과 상식을 부정하라는 메시지는 아이들에게도 전해 줘야겠습니다. 황남선님·PEOPLE



‘틀을 깬 시도, 최초의 한류 스타를 탄생시키다’ 칼럼이 좋았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다시 한류 열풍을 일으켜 애청자로서 뿌듯했는데, 우리의 조상인 허난설헌의 시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고, 쿵후 악역계의 독보적 스타 황정리가 한국인이란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콘텐츠와 훌륭한 인재는 세계적으로 통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전해연님·INSIGHT



꿈찾기 프로젝트! 아주 행복한 공부방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게 전해지네요. 방과 후에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꿈 실현을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훈훈하게 다가왔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와 청소년들이 아주 행복한 공부방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밝고 건강한 인재가 되기를 응원할게요. 김화영님·AJU SHARING

지난 호 IDEA 정답 공개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HINT!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유발한다는 이론(○○효과).



정답 : 나비
나비의 날개 무늬를 확대해 찍은 것입니다.

정답을 맞으신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유현경님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훈님 경기 남양주시 천마산로



아주좋은날 vol.45호는 세상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만들어 가는 '다른 시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 보았습니다. 틀을 벗어난 나만의 다른 시선으로 즐겁고 새로움이 가득한 흥미로운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아주 좋은 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애플트리테일즈 도서
김민수님 경기 군포시 금산로, 이현규님 경기 과천시 별양로, 김수진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전숙현님 강원 강릉시 하평길, 이창훈님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2만 원권)
전해연님 대전시 중구 충무로, 김여진님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김화영님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 황남선님 경기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이설희님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아주산업	아주베트남	아주캄보디아	브이섬	아주지오택	아주캐피탈
아주지속은행	아주IB투자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아주오토서비스	아주호텔앤리조트
하얏트리젠시제주	아주프론티어	아주글로벌	아주큐엠에스	아주복지재단	

My home is not a place, it is people.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일컫는다.

Lois McMaster Bujold
로이스 맥마스터 부올

가족 글. 강대환

사랑의 울타리 만들어
거센 비바람 몸소 막아내고
행복의 꽃 찬란하게 피어있는 곳
까르르 까르르
꽃들이 웃는다.

이토록 세상살이
힘들다 말들 해도
층층돌담 가시밭길 맨발로 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고통을 웃음으로 참아내며
아버지의 그늘진 모습
축 처진 어깨 보이기 싫어서
때론 큰소리로 욕박을 지르기도 하지만

평생을 어루만질 나의 가족들
그리울 땐
한달음에 달려가 끌어안을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메밀
그림. 송훈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아주 좋은 날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아주 커뮤니케이션팀

06626



금강초
그림: 송훈

